

## 소개 - 진리의 기초

### 일곱 가지 위대한 진실

## 1장 -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당신은 속이는 것을 좋아합니까?”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누가 “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을 알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중국인부터 미국인, 브라질인까지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 먹이를 찾는 동기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깨어나 그녀를 찾으러 나갑니다. 누가 넣었어?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길을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우리는 그 자동차 모두에 바퀴가 4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조사가 그렇게 계획하고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우를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들 안에 두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존재,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이다” (요한복음 14:6). 그는 진실이다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모든 사람 속에 두신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을 “만국의 보배”라고 부릅니다. (학개 2:7). 그 현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보배로운 분이십니다”(아 5:16).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진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진실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4).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오는 사람은 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복음 6:35). 그분은 진리에 대한 모든 인류의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한 사람”(요한복음 8:40)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어떤 종교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종교 철학을 너무 열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 그러나 그분의 사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소망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찾겠나이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그들의 많은 질병과 악한 것과 악령을 즉시 고쳐 주셨으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맹인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느니라 . . 그리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누가복음 7:20-23).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덜어주셨으며,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짐을 덜어 주셨는가! 한번은 회당에서 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가매 예수께서 저희를 다 고치”(마 12:15) 셴다.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억에 남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가거나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이 남자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23) 예수님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능력의 유일한 통로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그들의 걱정과 염려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실 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장)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토록 사심 없는 사랑을 보여준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같은 일을 가까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하늘에서 보내셨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보여 주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요한복음 14:9).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나는

요한복음 4:8).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신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사심 없이,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물건으로 이용하여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성품을 지닌 사람과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

예수님을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한 모든 일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왜 희생되셨는가? “이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서워하므로 평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심이라”(히 2:14).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불안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6).

이 본문의 의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양심을 “찌르거나” 찌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 3:4). 우리는 출애굽기 20:3-17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중 십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롬 6:23). 사람은 죄인이고 우주의 법칙인 십계명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까 두려워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한 정의. 그의 죽음이 사람의 형벌을 지불하였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믿음으로 그의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분께는 영생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고후 5: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모든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그들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구주이자 친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계시록 22:17).

#### 미국 근처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탐나는 사람들은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영원은 천국에 간 후에도 모든 사람이 매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나이다”(시 119:151).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까?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했습니다(갈 2:20). 성도들과 세상에 나타난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골 1:27)이다. 인간성의 한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늘의 기름인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성기는 천사들을 통해 보내셨습니다(행 2:32, 33; 히 1:13). 천사들은 우리의 양심에 말을 걸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 3:20).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계 1:1).

우리가 천사들이 가져오는 예수의 인도를 들을 때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몫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는 우리의 성격, 즉 도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다

고귀해지면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양한 상황에서 행하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협력을 포함하는 이 과정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때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 안에 사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십계명에 담긴 진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 복음의 좋은 소식

복음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녀를 알고자 하신 소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사랑하는 분, 자신에게 필요한 분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상하게 합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간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항상 당신의 의식으로 “찢러대고”, 바늘로 찌르고, 찌르면서 돌아옵니다. 당신 안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에요. 왜 거부합니까? (전도서 12:11) 사울로는 마음속으로 진실의 바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추종자들을 거부하고 그분을 사기꾼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9:4, 5) 그러므로 예수를 거부하려면 인간은 진리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계속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0, 31).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요한복음 14: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 것이요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를 아는 것이 또한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면 그를 알므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4:6; 8:32, 34, 36)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정도는 그분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은 죄의 정죄와 오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을 구원받고 도덕적으로 승리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영생을 향하여 - 영적인 집을 짓는 것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전한 사람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이리저리 밀려 다니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곧 사람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도다”(에베소서 4:13, 14).

바울은 우리의 성장을 그리스도의 키에,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권속과 동일한 시민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19-22).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는 이 비교를 더 깊이 탐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기초를 닦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위에 구축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세운 것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이면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나타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로 드러나기 때문이라. 그리고 각 사람의 일이 무엇이든 불 자체가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9-13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11절)라는 기초를 놓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자요, 사람의 완전한 구주이신(고전 2:2)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파했고, 고린도인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로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요한복음 14:6). 바울은 전파함으로써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진리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 기초 위에 “또 다른 이가 건축하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 전파자, 이 경우에는 복음 전도자 아폴로가 편지의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는 “이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의 일은 집을 짓는 사람의 일에 비유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던져진 각각의 진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진실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건축자이다.

## 일곱 개의 기둥

비교는 복음 설교자들이 가르친 진리가 신자들의 마음 속에 “영적인 건물”을 건설하는 일부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설교자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우리의 영적인 집을 건축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서 아들로서 ; 우리는 누구의 집이요 ” (히 3:5, 6). 성경은 그분을 우리를 가르치는 바로 그 지혜로 제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것이 되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으니 …” (고전 1:30). 잠언 9장 1절에서는 그분을 지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그 일곱 기둥을 드러냈느니라.” 잠언 9:1.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진리의 일곱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후에, 그분은 그분 자신의 지혜로서 우리 마음에 기둥 역할을 할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너의 역할? 집의 기둥과 같아서, 바람과 홍수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유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요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마태복음 7:25). 요한은 “네가 본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이니라”(계 17:15)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사람들의 박해, 조롱, 나쁜 영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간사함과 간사한 유혹에 우리를 미혹하여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14). 그러므로 교리의 바람과 핍박의 물살과 악한 영향력은 우리의 영적인 집을 파멸로 이끄는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일곱 기둥을 배우고 믿는 사람은 불행에서 보호받을 것입니다.

## 내구성 있는 재료로 건물 짓기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진리, 즉 믿음의 일곱 기둥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류의 물과 바람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 풀, 짚”과 같은 다른 교리로 대체합니다. 그는 사자를 석공예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리라”고린도전서 3:12, 13. 일부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금, 은, 보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교리. 다른 것들은 “나무, 건초, 짚”입니다. 사람의 계율인 교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나타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로 드러나기 때문이라. 각 사람의 일이 무엇이든 불이 그것을 시험할 것입니다”(고전 3:13). 불은 사자들의 설교의 결과로 신자들의 믿음이 발전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불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에 나타나는 타는 불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같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작정한 것이라”(베드로전서 4:12).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의 바람과 핍박의 물이 몰아칠 때, 건초와 지푸라기에 비유된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경적 교리를 먹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과 오류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진리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습니다. 기둥으로 지탱된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 일러스트레이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하든지 믿기만 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안에 안식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원하고 행하게”(빌 2:12, 13)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자신의 성격 결함에 맞서 맹렬히 싸우지 않습니다. 전에는 어려움과 핍박이 닥치면 속히 분개하여 의의 길을 버리느니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함으로써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는 그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너무 늦게 그는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에는 “더러워진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가지 못하되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27) 그의 영적 집에는 성경적 진리의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은 구원의 요점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말씀의 참된 교리를 알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차 선로 중 하나를 조금만 우회하면 몇 킬로미터 앞에 큰 간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교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거든,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영접하지도 마십시오.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악행에 공범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9-11.

### 승패를 결정하는 일곱 가지 진실

이제 잠언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보이니라.” 잠언 9:1.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진리의 수는 일곱 가지입니다. 여덟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없습니다. 일곱은 충만함의 수, 어떤 것의 수

성경에 완전하다. 일주일은 7일이 있습니다. 목시록에 나오는 인의 수는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과 같이 일곱입니다. 항상 7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일곱 가지 위대한 진리, 즉 믿음의 일곱 기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일곱 기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초자연적인 힘의 비결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봉헌된 원주민이었고, 이러한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일곱 가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잃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서는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런 다음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히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 일곱 가닥을 깎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사기 16:20.

이 작은 책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지식의 일곱 기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하나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경의 일곱 가지 위대한 진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하이로 카르발류

## 2장 - 첫 번째 위대한 진리 -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일곱 가지 큰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돌아켜 그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랍비(스승님을 의미함)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들은 가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1:35-39)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요점으로 가서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둥, 믿음의 기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둥은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기둥일 수 있습니다. 구주를 사랑하는 모든 참된 제자는 또한 그분의 집이라는 친밀한 곳에서 그분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어디 살아요?”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과거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할 성경의 위대한 진리 중 첫 번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구주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니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4:16-19).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인격 속에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직접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역사와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는 압도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탐구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 실망스러운 인간의 기대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 이후에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십자가에 대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아침까지 갈보리의 믿음을 따라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무덤에 가서 죽음을 이기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이 축복받은 경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앞으로 있을 일이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전 1:9).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자 노력한 사람들도 실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끈기 있게 구하면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그러한 움직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18세기에 그 중심지는 미국에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한 후에 곧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다양한 종교 종파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그들은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리고 행사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은 곧 확산되었다.

짚돌. 다음과 같은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로다” (계 14:7). 그들을 확신하게 한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이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성소가 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곧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땅을 불로 정결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만날 준비를 했고, 이를 위해 행사 당일에 준비가 되도록 삶의 모든 것을 지도했습니다.

#### 이천삼백의 오후와 아침

“그때 나는 성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가 말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희생과 파괴적인 범죄에 대한 환상은 성소와 군대가 넘겨져 짓밟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최대 이천 삼백 저녁과 아침;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3, 14).

천사는 범죄가 만연할 때, 즉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성소와 그의 군대가 짓밟힐 때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세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사람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즉 대리자라는 칭호를 취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의 교회의 성소로 대체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딤후 2:5). 그러나 이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 즉 마리아와 성인들의 중재를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대신 율법을 범하는 것을 확립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교회의 교리에 순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출 20:4)고 되어 있는데, 교회는 형상 숭배를 승인했습니다. 루터와 다른 프로테스탄트교인들은 교회가 옹호하는 진리에서 많은 일탈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그분의 종들을 짓밟고 고문실, 모닥불, 단두대, 지하 감옥에서 죽이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종교권력과 실제 권력이 혼동되던 시기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4월 20일 1233년 부터, 두 개의 전단지들을 편집했습니다 이는 인퀴지션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기에 그녀는 이단을 전파한 적 몇 명을 재판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정죄하고 국가(당시 일반적이었던 "사형"을 적용함)에 넘겨주었습니다.” 출처: <http://pt.wikipedia.org/wiki/Inquisi%C3%A7%C3%A3o> - 2007년 9월 27일에 액세스함(강조).

---

“이단”, 즉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리는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행위와 성례가 없이(히브리서 10:38; 에베소서 2:8,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른 진리들. 중세 교황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빛을 불렀습니다. 어둠 그리고

어둠, 빛. 그는 그리스도의 성소를 그분의 교회의 성소로 바꾸었고, 그분의 중보를 자신의 교회로 바꾸었으며, 예수의 희생을 미사 희생으로 대체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 번 희생되셨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인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제사와 죄악의 환상이 응하였으니 이는 성소와 군대를 넘겨 주어 짓밟히게 하려 함이라” (단 8:13). 그러나 예언에서는 이 도덕적, 영적 어둠의 시대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비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 최대 이천 삼백 저녁과 아침;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179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가 로마를 침공했을 때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교황 비오 6세를 투옥하고 그를 추방했으며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나중에 그를 참수했습니다. 그의 패권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에 예언된 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성소가 깨끗하게 될 때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연구하고 싶어 했으며,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가 수행한 연구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그의 연구는 성경이 그 자체를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 즉 성경의 일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천삼백 주야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서 8장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8:26, 27). 9장에서 선지자는 몇 년 후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원년에... 내가 아직 기도할 때에 처음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오후 제사 시간에 나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지시하고 나에게 말하여 말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나왔다.

너희가 처음부터 간구할 때에 명령이 이르렀으므로 내가 이를 너희에게 알리러 왔노니 이는 너희가 큰 사랑을 받은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이상을 깨달으라” (단 9:1, 21-23).

천사가 환상을 명확히 하여 8장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단 8:16). 다니엘서 시작부터 8장까지 그가 깨닫지 못했다고 보고한 유일한 환상은 이천삼백 주야의 환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환상은 이것이었습니다.

70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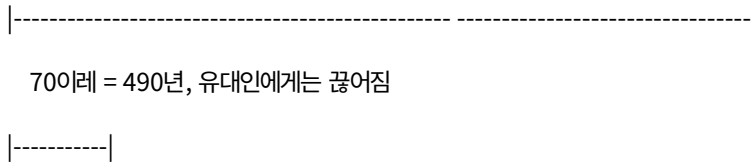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속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봉인되기 위함이라. 환상과 예언이 있고, 지성소에 기름을 부으라.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반차가 나갈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오기까지 칠 이레와 육십이 이레니라” (단 9:24, 25). 그는 2300일 오후와 오전, 즉 2300일의 기간 중 일부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백성 곧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에게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느니라.” 법령 으로 번역된 용어 가 원문이다.

"chatak"은 문자 그대로 절단을 의미합니다. 70이레는 총 2300일에서 갈라진 기간이다. 기간 중간에 포인트가 표시되지 않아서 70이레의 시작은 그 시작으로 간주되며, 시간의 처음 70이레는 2300일부터 계산됩니다.

70주 x 일주일의 7일 = 490일

성경은 상징적 예언에서 하루가 1년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한 날수 사십일로 하루가 일년이니라 너희가 사십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라”(민 12:1). 14:34). 그러므로 시간은 490년이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2300 오후와 아침 = 2300년



전체 기간의 첫 번째 부분이 70주임을 고려하면 계산의 시작점도 2300일이 됩니다.

## 2300년의 오후와 아침은 언제 시작됩니까?

“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후로 알고 깨닫느니라 ”

(단 9:25). 이것이 카운트의 시작점입니다. 예루살렘 건설에는 세 가지 법령이 있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인 키루스와 다리우스는 도시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두 가지 목적, 즉 독립 정부를 회복 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명령을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에스라가 보고한 대로 아닥사스다에 의해 7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율례의 학사 에스라 제사장에게 준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만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율법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에게 준 글의 초본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평화, 완전하십니다! 내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것이라고 내가 명하였다. 너는 왕과 일곱 모사에게 명령을 받아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조사하라 그리고 그 은과 금을 빼앗으려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으니 또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모든 은금과 아닥사스다 왕이 나로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네게 구하노니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의 집을 위하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라 하늘의 하나님”(에스라 7:12-16, 21, 23).

다음은 예루살렘의 일부를 건축하는 순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좇아 총독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다 알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형이나 추방이나 벌금이나 투옥에 따라 즉시 그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7:25, 26). 그 법령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정부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정부의 자치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법령은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것은 기원전 458년에 공포되었지만 기원전 457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가을, 즉 9월과 10월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날짜는 신학자들에 의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엘레판티네의 파피루스가 발견된 후 논쟁은 치명타를 입었고, 이로 인해 올해가 법령이 제정된 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칠십 이레와 2300일의 오후와 오전의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300 오후와 아침 = 2300년

|-----|

70이레 = 490년, 유대인에게는 끊어짐

|-----|

기원전 457년

62주

천사는 예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중건하라는 반차가 나갈 때부터 메시아 왕이 오기까지 칠 이레 칠십이 이레니라”(단 9:25).

62주의 시간은 457년부터 메시아인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판에는 메시아 대신에 “기름부음받은 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반차가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까지 지낼 것이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니라”(단 9:25 - 개정 및 업데이트된 Almeida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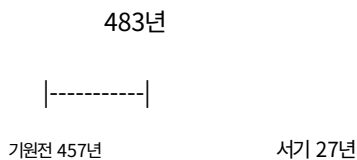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사람들에게 바르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니다. “하나님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행 10:38).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16). 따라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 예언의 주간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7\text{주} + 62\text{주} = 69\text{주}$$

$$69\text{주} \times \text{주} 7\text{일} = 483\text{일}$$

예언상: 483일 = 483년.

기원전 457년부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483년이 걸립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면  $457 + 27 = 484$ 년으로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 0(0) 연도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원전 2년, 기원전 1년, 서기 1년, 서기 2년으로 계산됩니다. (0 없이). 시간선에 0이 있다면 457년에서 시작하여 483년을 더하면 도착할 것입니다.

안예:

$$483 - 457 = 26.$$

그러나 0이 없으므로 숫자는 1년 앞으로 이동합니다:  $26 + 1 = 27\text{BC}$ . 이제 수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에 따르면 기원전 27년에 왕자는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올리브 기름으로 행해졌으며 성령의 부어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C 27년에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칠십 이레의 예언에 나타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약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엄격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훌륭하십니다!

## 마지막 주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반차가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군왕까지 지낼 것이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니라”(단 9:25). 7(7) + 62(62)를 더하면 69주가 됩니다. 70이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왜 마지막 것을 분리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예언의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주에 대해 말하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중간에는 제사와 소제를 그치게 할 것이다”(단 9:27). 왕자이신 예수께서 연주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히 8:6)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딤후 2:5).

일주일의 중간쯤에 그분은 희생 제사를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소에서 행해진 제사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9). 그분은 진정한 희생이셨습니다. 동물의 제도는 단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어 그들의 죄를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동물 희생은 더 이상 계속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을 상징하는 의식을 거행할 필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점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주의 중간에 제사를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70년의 마지막 주장은 AD 27년에 시작되었으며, 일요일은 7일입니다. 그리고 예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루는 일년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절반은 3일 반, 즉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서기 31년이 됩니다. AD 역사는 예수께서 정확히 올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천사의 예언은 정해진 때에 성취되었으며, 십자가는 그 예언이 정확함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 3.5년 반주

|-----|

서기 27년

서기 31년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중단될 소제 (단 9:27) 는 또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빵과 포도즙의 제사에 주어진 이름이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려고 할 때 그것들을 자신의 상징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빵에 관해서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 이니라”(고전 11:24)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에 관해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고전 1:1)고 하셨습니다.

11:25). 그들은 다가오는 구세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희생에 대한 기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 성소의 희생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된” 이유입니다(마 27:51). 제사장들은 이 휘장에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수소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기름부음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 열마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레 4:15-17).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동물 희생의 피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늘의 증거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바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이제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느니라”(히 10:8, 9). 히브리인의 성소와 그 봉사하는 일이 폐하고 하늘 성소의 봉사가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공로를 드리시리라.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아직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첫째 장막이 아직 서 있더라...

그러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기록한 곳”(히 9:8, 11, 12).

#### 칠십 이레의 끝

우리가 본 바와 같이 70주는 490년에 해당한다. 텍스트에는 " 당신의 도시 에 대해" 결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끝나고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칠십인의 마지막 주장은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설교하다가 서기 31년 그 주의 중간에 죽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마태복음 10:6). 이 순서는 예언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지난 7년의 간격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이 제시되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머지않아 메시지 전파가 더 이상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행 1:8).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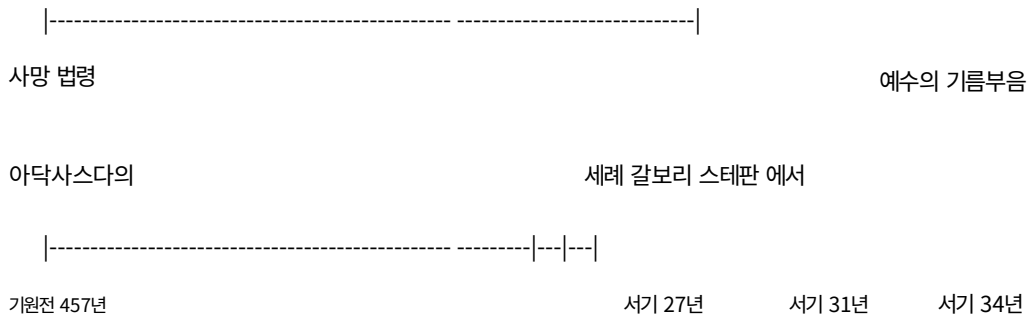


그는 기도하면서 말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그는 잠이 들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사도행전 7:59; 8:1,4).

스데반은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490년, 즉 70이레가 끝난 서기 34년에 죽었고, 그 후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분리한 기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대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명령에 의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끝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 대한 초대는 거부되었지만 지상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후, 바울은 복음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골 1:23)고 보고했습니다.

70주(490년)



지금까지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에 관한 해석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300년과 아침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때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후와 오전 최대 2300...

70주, 즉 예언의 490년이 지나면 1810년이 2300년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2300 - 490 = 1810년.

70주는 서기 34년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2300개의 오후와 오전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서기 34년 + 1810년 = 1844년.

그 예언은 때가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법령

그리고 성역

아닥사스다도 저녁과 아침까지... 정결케 되리라

|-----|

기원전 457년

1844년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예언이 성취될 당시 예언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성소가 지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에 그녀에게 다시 오셔서 그녀를 불로 정결케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제자들이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곧, 1844년에 당신은 여기 지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그들도 실망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은 그분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 현세의 왕으로서 로마인의 멍에를 깨뜨리는 것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오심, 즉 재림(그래서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음)을 기다린 신자들은 참된 성소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간 계산에 있어서는 그들이 옳았습니다. 2300일 오후와 아침은 실제로 1844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에 참된 성소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성소와 참 장막의 섬기는 이시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히 8:2, 9:24).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므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성소인 줄 압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이 성소가 정결케 됨을 가리킨다. 1844년 이후 말세의 신자들에 의해 제기된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1, 12). 그의 일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된다고 표현되어 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아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실 곳이 바로 그곳임을 보여줍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계 4:1, 2).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가셔서 그곳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고 부르시고 왕국을 받으시는 순간을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구름 인자 같은 이가 나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를 가까이 하게 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느니라 . ;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유일하게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2, 13)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으신 후 두 번째로 땅에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을 찾아 그분의 기업을 그들과 나누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나라를 받으실 때까지 성소에 머물러 계시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가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롬

10:17). 우리는 구속의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성소에 관해 성경에 주어진 계시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분과 더 긴밀한 교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는 그분이 우리 행성보다 크거나 더 큰 천국에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살아요? 그들은 “성소에서”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음 책에서는 예수께서 사시는 곳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우 가까이 걷는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이 가자?

## 제3장 두 번째 위대한 진실: 인간의 집 예수 그리스도 - 하늘 성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다가 돌아가시어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구름이 그를 영접하여 그들의 눈에서 그를 가리웠느니라 하늘을 우러러 올라가 실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향하여 서느냐 하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1-4, 9-11.

천국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 들리시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우편에 앉으라”(행 2:32-34)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느니라”(계 3:21).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니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왕이여 성소와 참 장막의 섬기는 이시니 이 장막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이다' (히브리 8:1, 2)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예수께서는 “성소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 참 장막이라 칭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원본의 사본이며 그 모형으로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보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방식에 따라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5) 지상의 성소는 일종의 모형, 곧 하늘에 있는 참된 모형의 작은 모형이요,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가장 크고 온전한 장막”(히 9:11)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성소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성소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서는 지상 성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 하는 성막이 있고 거기에는 금 향단과 온전한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으니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언약의 돌판;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림자로 속죄소를 덮었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9:1-5.



그림: 성소를 배경으로 한 모세의 성막

성소의 첫 번째 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 등잔대 (2절) - 일곱 개의 등잔대가 있고 그 끝에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등잔대가 달려 있다.
- 상과 그 위에 섰던 진설병(2절).
- 출애굽기에는 향단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증거궤 앞 휘장 앞에 두고” (출애굽기 30: 1, 6) .

이곳은 지상 성소의 “거룩한” 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하다고 불렸습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나누는 데는 “둘째 휘장”이라고 불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둘째 휘장 밖에는 성막이라 일컫는 장막이 있으니”(히 9:3). 아래 그림은 가구 배치와 함께 성소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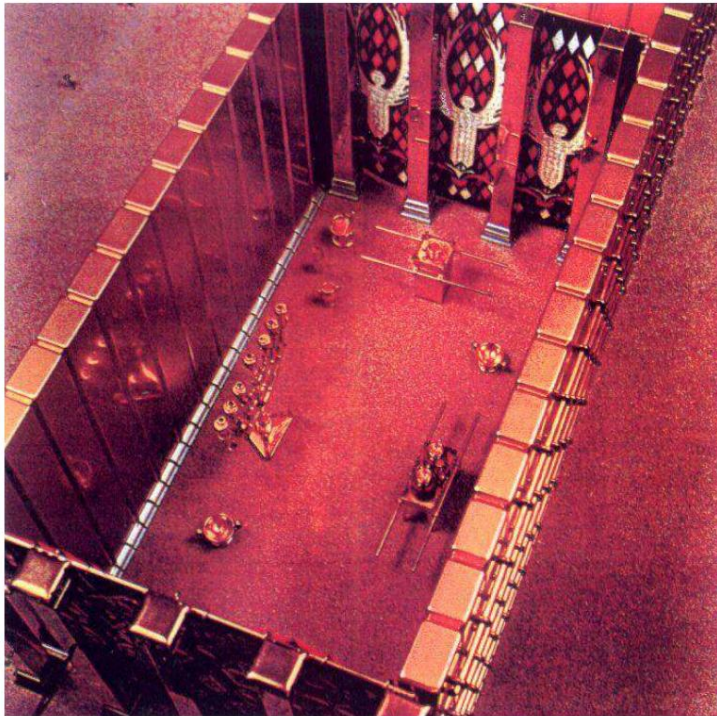


그림 1 - 성소의 “거룩한” 장소 복제 사진. 배경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일곱 개의 램프가 달린 상들이 있습니다.

**참고:** 성소 기구의 중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의 부록 1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그릇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고 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 히 9: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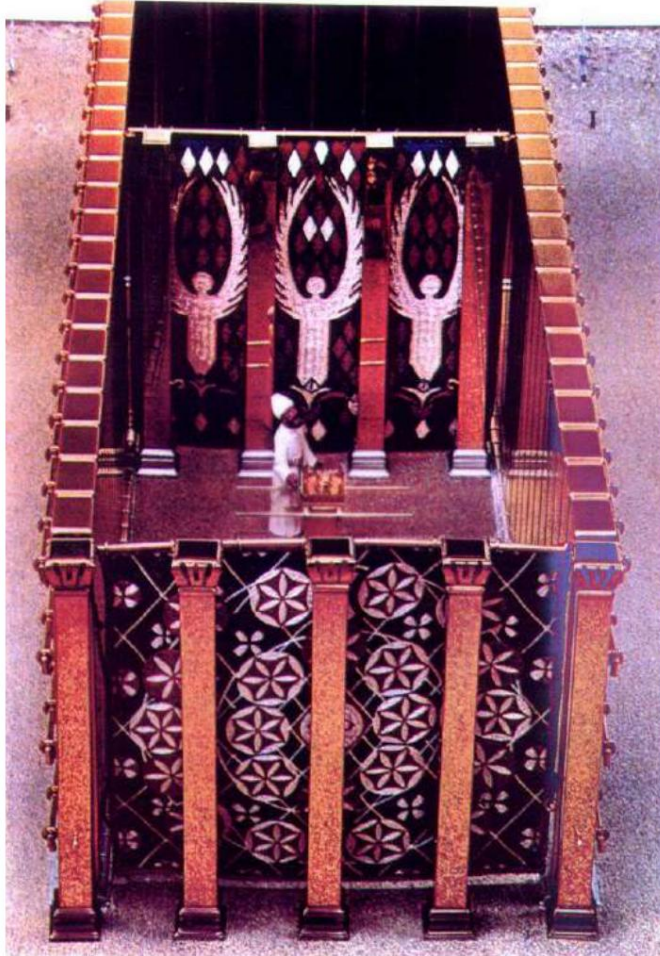


그림 2 -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둘째 휘장 앞에 분향단 옆에 있는 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성소보다 “더 크고 ” “더 완전”한 참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것, 곧 이 창조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장막”이시며, 이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히 9:11; 8:2). 거기가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곳인데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성소에는 “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 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히 8:4, 5). 지상에서 히브리 제사장들의 사역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명령된 대로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만일 이 땅 백성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와 해서는 안 될 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 범죄하여 그러므로 유죄이다; 만일 그 범한 죄가 그에게 깨달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가져올 것이요.

속죄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올 것이요 그리고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목을 베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러면 그의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 내듯이 그 모든 기름을 떼어 낼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위에 불살라야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레위기 4:27, 28, 33-35).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33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을 베었습니다". 죄와 함께 죽은 어린 양은 갈보리 십자가의 참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스스로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 털 깎는 자들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 영혼이 죄를 속량할 때에... 나의 의로운 종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53:6, 7, 10-11). 희생된 동물은 “흠이 없어” (28절), 죄를 짓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고후 5:21).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희생자의 “목을 베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가 아니라 고통과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시했습니다. “내가 물처럼 쏟아부었으니 ...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안에서 녹았나 이다.” (시 22:14). 그러므로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살해한 죄가 있습니다.



그림 3 - 동물을 희생하는 외부 뜰(성서에서는 “아트리움”이라고 함)에 위치한 희생 제단을 포함한 지상 장막의 외부 모습.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회중의 천막”이 배경에 나타납니다.

이 상징적 의식의 목적은 예배자의 믿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요일 4:10, 16). 죄인을 용서하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묵상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와 조화롭게 살도록 이끄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에서 이기심을 쫓아내고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지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산 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모든 일이 다시 이루어졌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고후 5:14, 15, 17). 이 새로운 경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아 있으면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4:3)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 있기를 선택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탐내지 마십시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요약되었느니라”(롬 13:9).

이제 히브리 성소로 돌아갑니다. 레위기에 확립된 의식을 따라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경험을 누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따라서 그 의식은 비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읽음으로써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의 계획에 관해 배우는 내용은 이스라엘 예배자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예시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 레위기에 확립된 의식의 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을지니라 그런 다음 기름부음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 얼마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4:13, 15-17.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의 둘째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희생제물에게 고백한 죄는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은 피가 뿌려진 둘째 휘장 가까이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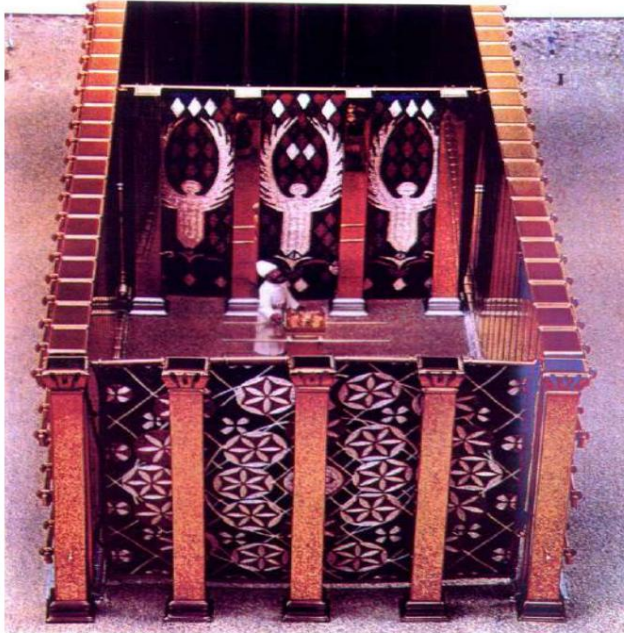


그림 4 - 분향단 옆, 둘째 휘장 앞에 위치한 제사장

예식에서 예표된 일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 하였고 중보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자가 있으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딤후 2:5). “사람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요 또 무식하고 그릇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려 함이니 자기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음이니라 ... 그리스도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대제사장이라” (히 5:1, 2, 5, 10).

죄를 둘째 휘장으로 옮기는 일은 성소의 “거룩한” 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휘장 가까이로 가서 그 피를 휘장 위에 뿌렸습니다. 이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의 “거룩한” 칸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곳에 있는 지상 성소의 등대로 상징되는 일곱 금 촛대 옆에 있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에 감동되어... 내가 돌이켰을 때 일곱 개의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니라” Apoc. 1:1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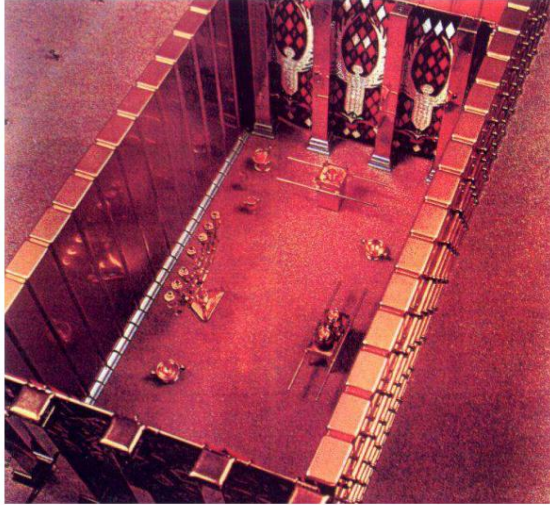


그림 5 - 성소의 성소에 있던 등대(촛대)(그림에서 왼쪽)

제사장이 고백한 죄와 함께 피를 성소로 가지고 가서 둘째 휘장에 뿌렸듯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죄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성소의 “거룩한” 칸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속의 계획의 현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는 하늘 성소에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와 함께 기록될 것입니다. 성경은 각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앉아서 책들이 펴졌으니”

(단 7:10). “그리고 죽은 자들은 성경에 기록 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느니라.” (계 20:12).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이 함께 기록되었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사야 65:5, 6);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들으시느니라.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비가 기록되었 느니라 ”(말 3:16). 이 책에는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즉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상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속죄”라는 일을 수행한 후에만 죄의 최종적인 용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제사장이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 레위기 4:25, 26). (킹제임스 버전 -

영어).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였다. 예수님께서 속죄 사업을 수행하실 때 죄의 최종적인 용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 이 중요한 일을 하실 것입니까? 어디? 어떻게 수행되니까?  
이 시리즈의 다음 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제4권 - 세 번째 위대한 진리: 예수님은 지금 나를 대신 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 속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 에게 명하여 성소의 휘장 안 궤 위 속죄소 앞에 항상 들어 가지 말라고 하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속죄할찌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일년에 한 번씩 보전하느니라” (레 16:2, 3, 32,34).

대제사장은 속죄 일에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용어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대제사장은 그의 모든 죄를 속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에서 우리는 이 일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이스라엘 자손의 더러움과 그 범한 것을 인하여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더러움에서 나온 것이니라”(레 16:16, 19).

죄인들은 일년 중 매일 그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며, 제물의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받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년에 한 번씩” (34절) 속죄, 즉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날 성소는 죄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날에 속죄 사업의 유익을 받기로 준비하여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가르쳤느니라.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당신의 신. 그날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레 23:28, 29). 이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이날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속죄는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히브리 종교법은 구속 계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지상의 성전이 1년에 한 번 정결케 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소도 구속의 계획 동안 단 한 번만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행해진 일의 본을 따라, 예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늘 성소의 “거룩한” 칸을 떠나 “지성소”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마지막 일이다. 인간에게 은혜와 용서의 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은 속죄의 때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 방주의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또한 속죄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때가 되면 그토록 오랫동안 멸시받던 자비가 더 이상 죄인들을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끝나고 보응의 심판의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때 묵시록의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겪어보지 못한 재앙,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속죄 사업을 시작하실 것인지 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그분이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구속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은혜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권에서 공부한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천삼백 저녁과 아침까지 그리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단 8:14).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 날에 예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즉 속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듯이 이날에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함

전형적인 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에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레위기 16:30). 그 해에 고백한 죄는 그날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은 결정한 대로 “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를 마치고” 그 죄를 염소에게 두었습니다. 아론은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에게 고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염소 머리에 얹고 그 일을 위해 임명된 사람의 손에 의해 그를 광야로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외로운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 것이다.”

(레위기 16:20-22) 그 죄는 성소에서 옮겨져 염소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깨끗해졌고, 이스라엘 송배자들은 그들의 죄가 지워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현재를 위한 비유였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피로 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실 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9, 11, 12). 그분은 모든 참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영향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으로 간주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자녀가 아닙니다.” “외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 9:6, 7; 2:28, 29) 속죄일의 유익을 받는 자는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양심의 소리, 곧 그리스도의 소리를 영으로 듣고 순종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소리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자연히 율법의 일을 행하며...

율법이 그 마음에 기록되었으니 그 양심과 그 생각이 고발하든지 변호하든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증거가 되리라”(롬 2:14-16).

일반적인 예식에서는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한 외국인들만을 위해 거행되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서 한때 그분의 영의 인도에 복종한 사람들만이 속죄의 큰 날에 그들의 문제를 고려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경우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참조 계 20:11-15).

### 공사비 비례지급

전형적인 의식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은 염소는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외로운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 것이다”(레 16:22).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실 분을 대표해야 합니다. 묵시록은 미스터리를 풀어줍니다. 요한은 사탄의 상징인 용 (계 12:9)을 붉은색으로 보았다고 보고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라” (계 12:3). 성경에서 빨간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비록 너희 죄가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사 1:18). 그러므로 붉은 용은 스스로 죄를 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희생양이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통해 마침내 성도들의 죄를 자신에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으로 대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십계명을 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아들의 희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분의 참된 성품을 깨닫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참 성품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의 진짜 범인은 사탄입니다.

죄가 하늘 성소에서 제거되면 그 죄는 당연히 사탄에게 지워질 것이며, 사탄은 그에 상응하는 불뭉치의 형벌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6:23).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계 22:12). 그러므로 네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해하지 않은 보통 사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모독을 강요한 사울의 죄는 그리스도를 체포한 폭도 중 하나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옹호함으로써 죄를 지은 반면,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둘 다 죽어야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울이 베드로보다 그의 행위에 비례하여 불에 더 오래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례 페널티는 누구든지

사탄과 맞설 것이다. 구원을 위한 희생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악행의 가혹함에 비례하여 사탄이 갚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악한 행위가 정죄의 불의 연료라는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그것을 선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에 의해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무엇인지 증명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과가 불탔으면 해를 받으리라.” 악인의 죄는 그들을 불 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연료가 다 떨어지면 그들은 죽어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마는 더 오래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재”가 될 것입니다(고전 3:12, 13; 말 4:1-3).

영원한 불?

성서는 마귀가 이미 오늘날 지옥이라고 불리는 불길로 가득 찬 곳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그가 형벌을 받을 때를 가리킨다. “보호하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석 사이에서 멸망시키리라”(겔 28:16). 그러면 그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사탄이 멸망될 이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희를 사르게 하여 너희를 보는 모든 자의 목전에서 너희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느니라”(겔

28:18). 마귀 자신도 장래에만 불에 타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 지옥에 불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불못의 형벌은 최후의 심판 후에만 집행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고, 그분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또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31-33, 41) 요한은 미래에 일어날 동일한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1-15).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계시록 20:14 - 개정 및 업데이트 미국역). 참고: 불못은 둘째 사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던져지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오바. 1:16).

제사장이 염소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전형적인 예식에서 일어난 속죄로 돌아가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실 것이다.

여러분의 죄를 그분과 함께 담당하시고 사탄에게 그 죄를 자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죄가 하늘 성소의 기록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소에서 죄가 지워질 때 우리 기억에서도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과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이해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

(로마 11:27; 히브리 8:10, 12) 죄에 대한 확실한 용서가 주어질 것입니다.

#### 확실한 용서

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최종적인 용서가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자신들의 행위가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천국이 그들의 집이라고 군중들이 믿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속임수의 결과로 죄악과 위선이 반쪽 속의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활동하며,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으로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도덕적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죄 사역이 끝난 후에야 확실한 용서가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26).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진리를 배운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궁극적인 용서는 미래의 속죄일에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음이라” (롬 3:24, 25). 바울은 여기서 성소의 예식을 언급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20). 그러면 죄는 기록부에서 지워지고 최종적인 용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편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 죄는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의해 수행된 속죄 사역에 의해 확실히 지워졌습니다. 속죄일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소에서 행해지므로 이 이름이 붙은 것은 히브리 성소의 언약계 위와 덮는 천사들의 날개 아래의 여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형 아론에게 일러서 성소의 휘장 안, 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항상 들어가지 말라고 하라” (레 16:2).



그림 1 - 언약궤와 그 내용물. 속죄소는 법궤 뚜껑과 그것을 덮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쉼기나가 나타나는 곳이다. - 부동산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십시오.

속죄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에 놀랐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어쩌면 내가 네 죄를 속죄 할지도 모른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들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당신께서 쓰신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출애굽기 32:30-32)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 화해를 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한 확실한 용서를 간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라”(롬 3:24, 25).

당시에도 그는 장차 신자들에게 확실한 용서, 즉 죄의 말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교했다. 사도 요한도 화해 사역을 통해 미래의 용서를 전파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일 4:10).

바울은 사도 시대의 신자들이 믿는 순간 용서(칭의)의 축복을 받았지만 궁극적인 용서는 수 세기 후 속죄를 통해 얻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는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기 오래 전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예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난 것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만물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미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4:17).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이후로 이미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실제로 용서를 받기 훨씬 전에 최종적인 용서의 축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죄의식에서 벗어났고 율법 앞에 무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죄 사업이 시작된 해인 1844년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 마지막 세대

예수님께서 속죄를 마치시려는 때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확정적인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에 기록된 그들의 죄를 지워주시고 그들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건으로 돌아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지워주셔야 할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죄인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은 지성소에 머물러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도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성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교회를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요한복음 14: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도말하는 일은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요한은 환상에서 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계 14:1, 4).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태어날 때 땅에 있는 부모의 성품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분의 피의 공로를 통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들의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목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협력하여 속죄하고, 믿음으로 죄의 정욕과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육신과 싸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사만 사천 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세대에 속하며, 이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중보자 없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중재하시기 위해 더 이상 아버지 앞에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흠 없이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살아 있는 성도들의 순수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큰 천둥소리가 들리니 할렐루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느니라. 기뻐하고 기뻐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그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니라”(계 19:6-8).

속죄 기간 동안 구원받을 사람들은 십사만 사천 명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십사만 사천 명이 아버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죄를 지워 주실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은 그들의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계획에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신자들을 위한 확실한 용서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죄를 허락하시고 하늘 성소에서와 그들의 양심에서 도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이 제사장의 피 뿌리는 일을 통해 예시된 영적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면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13, 14) “율법은 장래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가 자기 제사를 그쳤으니 이는 제사 드리는 자를 단번에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히 10:1,2).

죄를 도말하는 일과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 선언뿐 아니라 사람의 정신과 양심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일단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잊어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히 10:16, 17).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고후 5:17, 18). 사람들을 흠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예수께서는 그들이 용서받은 동일한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된 사람을 정당화하는 법적 선언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죄를 그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이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2)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느니라”(요일 3:8, 9). 죄나 유혹이 물 위를 걷는 것만큼 이기기 어려울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람은 그것을 쉽게 이깁니다. 사람이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의 씨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 28:18)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능력을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나 사람 자신을 이기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호수에 작은 돌을 던질 때처럼 쉽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죄가 쉽게 극복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사람이 예수 믿음에서 외면하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드로는 그렇게 하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그는 익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가라앉으면서 구원을 구하시는 구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간청은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트.

14:31).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눈을 돌리고, 구주와 그분의 공로, 그분의 계명, 그분의 신성한 인격, 인간 가족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외의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인간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도 적용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은 믿음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주를 바라보고 묵상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히 12:2). 사람은 그를 바라볼 때만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고 그분 없이 머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베드로는 그분을 외면했고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의심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10:27, 28).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죄도 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속죄 사업을 통해 예수님은 죄를 지우시고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 의식에서는 속죄 사업이 끝나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와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22, 23).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면,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불멸의 축복을 내리러 나가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 16:2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6, 17).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합당하니라.” (고린도전서 15:51-54)

조사 판결

성도들의 죄를 청산하기 전에 과연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자를 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도 멸시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워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범한 그 범법과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로다.” (겔 18:24).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한때 회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법정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1, 2)

요한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이시지만 우리의 대언자이심을 설명했습니다. 1844년부터 하늘 성소 속죄소에서 속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형적인 예식에서는 모든 사람이 속죄 사역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23:29).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들어간 모든 사람, 그분의 동역자가 된 모든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4:3) 이는 누가 자기 죄 사함을 받고 화목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지 알아보려 하심이니라 성소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드러난”(단 5:27) 모든 사람은 제거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에서 하늘 법정 이 조사 법정 일을 시작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았더니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셨느니라.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그의 보좌와 불꽃과 그의 바퀴와 타는 불이로다. 그분 앞에서 불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천 명이 그분을 섬겼고, 수백만 명이 그분 앞에 섰습니다. 심판이 앉았고 책들이 펴졌느니라.” (다니엘 7:9, 10) 영원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장면이 선지자의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찌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약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 12:13, 14)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개인의 모든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피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까지도” 정의의 기준과 비교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도 다 멸망하리로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로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로마서 2:16, 12, 13)

모든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여 의롭다 함(용서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십계명입니다.

생각, 의도, 동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의 것을 보거니와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우리의 알려진 업적과 숨겨진 모든 업적은 책에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방황을 세어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주셔서. 그것이 당신의 책에 없습니까?” (시 56:8). “내 형질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주의 눈이 보시고 날마다 이루어진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며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리라”(고전 4:5).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시고 들으시느니라. 그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비가 기록되었느니라.” (나뵤.

3:16); “보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다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65:5, 6).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변호인으로 소개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1, 2) 사탄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법정에서 나타나서 그들의 정죄를 요구합니다.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요... 그리고 밤.” (계시록 12:10)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보자요 옹호자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자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앞에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얼굴. 하나님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24; 7:25)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잠언 28:13).

만일 어떤 사람이 심판 때에 “회개치 아니하고 사함을 받지 아니한 죄가 기록책에 남아 있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해지고 그 선한 일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죄를 지은 모든 자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출 32:33) (대쟁투, 390쪽 - Editora Advertência Final). 어느 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록되었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당신의 모든 것 중

그가 행한 정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그 범법과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로다.” (겔 18:24).

많은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받아들이면 미래의 삶이 어떠한 천국이 그들의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거짓된 안전 속에 안식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고 앞으로 올 일은 지체되지 않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물러가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36-39) 죄 없으신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옳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비뚤어져 있지 아니한가?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살리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모든 죄악을 돌이켜 생각하고 그에게서 떠나는 자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길이 옳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옳지 아니하냐? 그리고 당신의 길은 비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와서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여러분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십시오. 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람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회심하여 살아라.” (겔 18:25-32).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의 희생으로 주장한 모든 사람은 하늘 책에 그들의 이름 옆에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너희 허물은 지워질 것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25)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계시록 3:5).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32, 33)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존중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에 따라 범죄자로 정죄를 받으리라. 모든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지점을 넘어가는 것은 모두의 잘못이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형제나 자매가 벌거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면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8-17)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그분을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신 것과 동일한 선한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동기, 목적,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신자는 변화되어 매일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고백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 5:6), 즉 율법의 표준에 맞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 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아포크.

14:1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3).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명상입니다!”; “나의 하나님여, 나는 당신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 119:97; 40:8)

참된 믿음은 신실한 신자를 내부 및 외부 적과의 매일의 전투로 이끌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명령된 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반대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명은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2:50).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과 올바른 행실의 길을 가리켜 주지만, 교만, 이기심, 허영심과 같은 내적인 정욕과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악한 천사들과 사람들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위반. 우리는 구주의 권능을 통해 올바른 길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께 여러 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심판 때에 옳게 여기시고 영생에 합당한 품성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베드로 둘째 1:4; 요한 첫째 2:16, 17)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계시록 3:5).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고려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18).

그러므로 조사심판에서 고려되는 사건들은 오직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사건들뿐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 손을 들고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의를 믿는다”(롬 10:10)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들만 포함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이들은 유희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 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3).

하늘 법정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심판만 심문할 것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지워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라.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계시록 3:5). 말씀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고 계시합니다(계 21:27). 그리고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지를 알려 줍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계 20:15).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생에서입니다. 죽은 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 이 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시기를 경고하시고 원하는 모든 사람을 준비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세 천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계시록 14:6, 7).

이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인간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보낸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것을 받아들일지나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십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다음 책인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녀에 대해 알아보고 그녀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독서와 학습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로 카르발류 목사.

## 제5권: 네 번째 위대한 진리: 세 천사의 메시지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소리로 이르되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가 그를 따르며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바벨론이여.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혼합함이 없이 그의 진노의 잔에 따르리라.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계속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6-12)

요한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발표된 후에 성취될 다음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분이 그분의 신자들을 모으러 오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하나 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 이한 낫을 가진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하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이르렀도다!”

(계시록 14:14, 15)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마태복음 13:39).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진 기별이다. 그래서 첫째 천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시 111:10).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영형

사람이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감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리보다 여호와여 주는 일어나사 긍휼히 여기시리니... 무력한 자의 기도를 나타내어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를 멸사하지 마소서.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될 것입니다. 창조된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시 103:12-18).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자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형식적이고 냉담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호텔 접수원에게.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당신의 은인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또한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목상할 때 그분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저희가 그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하십시오. 우리가 멸망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워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38-41)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승인하지 않으시는 일을 혐오할 정도로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잠언 8:13; 16:6).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그분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즉 계명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영원하고 완전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롬 13:8-10).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압제하지 마십시오. 오직 너는 네 하나님을 경외 할 것이니라”(레 25:17).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포함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간, 그것을 소유하신 분,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 새의 아들이신 예수의 예를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뻐하리라”(사 11:1, 3).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고 이상히 여겨 서로 이르되 바람과 물을 명령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더라.” (누가복음 8:25)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20)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거울이 태양 광선을 비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7, 18).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영으로 목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6: 63).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6:66-69)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을 준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큰 영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벧후 1:17).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께 정당하게 속한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소서”(시 29:1, 2).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느님께 영광을!”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도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말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누가복음 1장).

2:14).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 용어의 전체 의미를 요약하지는 않습니다. “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서 고백하여라. 그리고 당신이 행한 일을 지금 나에게 말하십시오.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수7:1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으시며, 우리를 오류로 이끄는 상황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야고보서 1:14).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나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함이니라”(요일 3:4).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ea culpa"라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회개와 변화와 길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외적으로 오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에 따른 범한 잘못에 대한 후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백은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인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쨌든 나는 어떤 고백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바벨론의 좋은 옷”이라고 부르는 것을 숨김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수 7:21). 그는 그의 죄의 열매인 물건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아직도 그것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불순종의 대가로 얻은 망토를 싫어할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 앞에 알렸는데, 더 이상 그것을 숨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씩 열심히 조사한 끝에 그에게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 자신의 마음이 죄의 열매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계 16:9)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성격을 띠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함이니... 보라 주께서는 마음 속으로 진리를 사랑하시나니... 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유행죄에서 나를 구원주소서. 그러면 내 허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당신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심령입니다.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 51:1-17)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러한 회개와 자백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30, 31)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일단 그분에 의해 정결케 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을 것이며 그리하여 심판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 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자. 그분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요일 4:1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4)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하라. 내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전 10:31-3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 16)

창조주를 경배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시록 14:7). 이것은 남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직접적인 호소입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 20:3)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가 숭배하고 엎드리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시 95:6, 7); 그리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으니 (신도 많고 수가 많으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라”(고전 8:6).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아버지이시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에 대하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계시록 4:11)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메시지는 세상에 그분을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시니라”(에베소서 4:6). 성경은 우리가 죄 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마 14:33; 28:9).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듯이 아버지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최고의 숭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어린양이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받으셔야 한다고 읽습니다(계 5:14).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요한복음 14:28)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찬양의 찬송을 부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찬송을 부르신 적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26:30).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보좌 에 함께 앉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21) 하나님은 아들에게 높은 지위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나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요한복음 5:23)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들로서의 그분의 위치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로다... 기록되었으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는 자는 제외된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면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 아래 두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려 하심이니라”(고전 15:25-28).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 영원의 날 이후였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에게서 배운다는 것을 압니다.

먼 과거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주 창조에 참여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의 제자가 되었더니”(잠 8:30).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 당시의 칭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먼 과거, 영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지구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아들이셨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는가?”(히브리서 1:5). 두 가지 뚜렷한 순간이 보고됩니다.

1 - 그리스도께서 영원 안에서 나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2 -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들”

히브리서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자로서 하늘의 문을 통해 다시 들어가시는 세 번째 순간을 알려 줍니다. 그를”

(히브리서 1:6). “만아들”은 “처음 난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다른 방식으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요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녀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들(나신)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한 용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니”(마태복음 1:2).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게 이해됩니다.

여기서는 “창조된” 주체와 생성된 아들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 1:26; 골 3:10). 그러나 아들은 정확한 육체적 형태를 따라 창조되었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표현합니다 (빌 2:6; 히 1:3).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완벽한 성품을 개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주의 첫 번째 창조물인 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보라, 그는 그의 종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에게서 어리석음을 찾으시는데도”(욘 4:17, 18).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게 되사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히 1:4). 그분은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을 물려받았으며, 성경에서는 성품을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전형적인 예는 “사기꾼”을 의미하는 “Jacó”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품성의 결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형태, 성품,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관련된 아들의 위치는 동등했습니다(빌 2:6; 히 1:3). 그러나 이것이 그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요한복음 10:3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영생은 곧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그리고 이 말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지 수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습니다. “비록 신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전 8:5, 6). 그리고 이것은 고립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이시니라”(에베소서 4: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있기를 원하노라”(요이 1:3).

일부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이 존재했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세기 후에 성서 번역판에 추가된 문구를 사용합니다.

번역가들은 이러한 추가 사항을 "보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원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건축자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 바벨탑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한 골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만들어 잘 태워 버리자. 벽돌은 돌로, 역청은 모르타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이 백성은 하나이요, 그들의 언어는 다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것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여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으로 흠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시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 10:9-12; 11:1-8).

니므롯은 바벨탑의 우두머리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 '마라드(Marad)'에서 유래했는데 '반역자', '반역자'라는 뜻이다. 창조주께서는 노아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1)고 말씀 하셨습니다. 신의 명령에 반대되는 니므롯의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과 탑을 쌓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니므롯의 이야기에는 여러 버전이 있으며 모두 다음과 유사합니다. 그는 너무 사악하고 불경건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와 결혼하여 탐무즈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니므롯의 영혼이 승천하여 태양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만들어졌습니다. 1946년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니므롯 이 진정한 메시아 로 숭배받게 되었다”고 더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미라미스는 달의 여신으로, 그녀의 아들은 구원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별 숭배는 니므롯, 세미라미스, 탐무즈의 육체에서 분리된 영들이 신으로 개종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교 종교에서 인간이 신으로 개종하는 과정은 나중에 “신격화”를 의미하는 “신격화”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이방 숭배자들이 탑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Nimrod, Semiramis 및 Tammuz의 숭배자들은 행성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사람의 숭배 체계(따라서 "삼위일체")와 사원 건축에 대한 지식(지구라트와 피라미드)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분명히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지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비율의 피라미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 기록이 삼위일체, 즉 별 숭배가 거의 모든 고대 이교 문명에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기독교 연구자들에게는 신비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드러 납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공통 조상, 즉 홍수 후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점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또한 많은 언어에서 그 날들이 봉헌된 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종교는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 영어로 Sunday는 일요일입니다: Sun = sun; 일 = 일. 일요일 = 태양의 날;
- 독일어에서는 Sonntag: Sun - Sol입니다. 태그 = 일;
- 등.

월요일:

- 영어: 월요일: 월 = 달; 일 = 일. 월요일 = 달의 날;
- 등.

니므롯은 죽었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이단 매춘부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종교적 “수고”의 결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태양신이 된 니므롯에 의해 자신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들은 12월 25일에 태어났고 이름은 담무즈(Tammuz)였으며 당시 이교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날짜는 탐무즈의 탄생일로 기념되었으며, 니므롯(태양신) 숭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첫날 전체가 태양 숭배에 바쳐졌습니다. 이는 한 주의 첫날이요, 한 해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어로 한 주의 첫날을 가리키는 이름인 '도밍고'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주 하나님, 태양의 날'을 의미합니다. 거짓 신 “바알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이는 단지 '강한 사냥꾼' 니므롯(창 10:9)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출처: The Silence of Educators ST. 발렌타인 데이. 오늘 스페인어로 “octava de navidad”라고 불리는 새해 첫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들 탐무즈(Tamuz)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탐무즈는 어렸을 때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야생돼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후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종교에 봉사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울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며, 그 끝에 바빌로니아 전설에 따르면 탐무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국의 여왕', '어머니 여신'이라는 칭호로 숭배되기 시작했다. 이 종교의 상징은 '어머니와 아이의 신비'로 알려진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출처: <http://solascriptura-tt.org/Seitas/Romanismo/Nacoes-NimrodeSemiramisMariaBabelBabilonia-Trois.htm> - 2009년 9월 11일에 액세스함.



그 후 담무즈 의식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담무즈의 몸은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각 부분으로 보내졌다.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는 시체를 재조립하고 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모든 곳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색은 4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끝에는 조각 하나가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강에 던져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수색 명령이 내려졌고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전통은 가톨릭 교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40일은 사순절이 되었고, 소위 '수난' 금요일에 생선을 먹는 날은 담무즈의 시신을 찾는 40일이 끝난 날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색 기간이 끝나면 마침내 고인의 시신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몸을 데우고 소생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그에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를 부활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매춘 의식을 통해 부활과 다산 숭배를 축하했습니다. 토끼와 달같은 다산의 상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에 초콜릿 달걀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교 종교인 담무즈(Tammuz) 숭배에서 나왔습니다.

“바빌로니아 전설에 따르면 담무즈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국의 여왕', '어머니 여신'이라는 칭호로 숭배되기 시작했다. 이 종교의 상징은 '어머니와 아이의 신비'로 알려진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이 종교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언어에 따라 이름도 달랐지만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아스타롯과 바알                    페니키아에서.

이슈타르 또는 인안나            아시리아에서

이시스와 오시리스                이집트에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그리스에서.

로마의 비너스와 큐피드 .

메데-페르시아인들이 바벨론을 지배했을 때 그곳의 제사장들은 소아시아의 버가모에 정착했습니다. 버가모는 모자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너스와 큐피드라는 이름으로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출처: <http://solascriptura-tt.org/Seitas/Romanismo/Nacoes-NimrodeSemiramisMariaBabelBabilonia-Trois.htm> - 2009년 9월 11일에 액세스함.

니르롯, 탐무스, 세미라미스 세 신은 각각의 이교도 민족에게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신, 두 번째는 신의 어머니, 세 번째는 아들 신인 탐무즈(구속의 신이라고도 불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은

오루스, 이시스, 오시리스. 이 개념은 이교와 기독교가 제국 내에 공존하기 시작한 이교 로마 제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정부를 장악하기 전, 여전히 막시밀리안과 경쟁하고 있을 때,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제국을 '기독교' 제국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지켰다. 그는 단순히 성서적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선언하는 대신, 두 세력의 융합을 통해 제국의 두 세력, 즉 기독교인과 이교도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모양의 구름에 의해 가려진 태양을 본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을 행하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 가지 예배의 개념과 형태를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가 나사렛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자라셨을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눅 4:16).

콘스탄티누스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기 321년에 일요일 준수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양의 존경받는 날을 예배하도록", 즉 이교의 예배일입니다. 그의 영향을 통해 성서적 기독교와 이교주의의 혼합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상 숭배는 제2계명에 의해 금지되었지만 이교도들에 의해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미지는 성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목성의 이미지는 사도 베드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로마의 바티칸에 있습니다. 목성의 뿔이 있지만 이름은 베드로인 동일한 이교도 이미지입니다. 이교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던 어머니와 아들 숭배는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의 회칙을 참조하십시오:

"천사의 수태고지에서 동정녀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하느님의 참된 어머니이며 구원자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 Lumen Gentium, 번호 53 - Edições Paulinas. **태양이 머리 주위에 있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이미지를 배척하세요.**

콘스탄티누스가 추진한 변화로 돌아가서: 예상대로 기독교 유일신교는 포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와 사도들은 한 하나님, 한 위격,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고전 8:6). 이교는 삼위일체를 숭배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두 번의 회의의 결과로 "삼위일체" 신이 교회 신조에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미 이교 철학에 오염된 성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직자들은 이교의 삼위일체 개념을 도입하여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세 위격으로 한 신을 예배하십시오. 서기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 경고한 참 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사도행전 20:29, 30) 그러나 황제의 지원을 받아 이교도들이 승리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교회 신앙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상과 마찬가지로 이교 신들도 성서적 이름을 얻었습니다. 서기 325년 콘스탄틴의 지도 하에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를 "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습니다. 몇 년 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두 번째 공의회(381년)에서는 성령이 세 번째 "신"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오루스(Orus), 이시스(Isis), 오시리스(Osiris)로부터 이제 제국이

기독교화된 로마에는 인간 회의에서 발명된 기독교화된 이교 삼위일체인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공식 기독교는 그 기원을 배반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의 카톨릭 - 로마(세계) 제국의 공식 교회

사도적,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사도들에게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 로마 제국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니르곳에서 시작된 이교를 참된 기독교와 통합하려는 콘스탄티누스의 노력에서 탄생했습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 거짓과 참의 연합의 열매는 로마 카톨릭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창조된 “삼위일체” 신을 숭배했습니다. 새로운 신에 대한 숭배, 새로운 안식의 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기독교화된 이교 숭배를 뒷받침할 성경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 제시”의 전문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두루마리를 제시하는 것부터, 이 날 일을 하면 특별히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 그리고 그들은 성경 번역본을 바꾸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의 요청에 따라, 루터와 동시대의 성서 번역자인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작업에 요한 일서 5:7에 괄호 안의 본문을 추가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하나이니라.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한 뜻으로 한 뜻이니라.”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을 비난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9년 개정판 번역자들은 이 구절들에서 괄호 “[ ]” 사이에 나타나는 본문이 원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버전의 주석(신약 363페이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f 5.8 괄호 안의 텍스트는 여러 사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서기 1500년 이전의 어떤 사본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원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남성에 의해 생산되고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마치 원문에 속하는 것처럼 소위 “현대” 또는 “에큐메니칼” 성경의 몇몇 번역본에 아무런 설명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언급하는 본문조차 아까지 않았습니 다. 오늘날까지 본문 비평에는 니케아 공의회 기간에 생존한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쓴 여러 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Eusébio는 당시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마태복음의 사본 중 가장 큰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음, 흥미롭게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유세비우스의 글은 또 다른 버전을 제공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니케아 공의회는 이교의 삼위일체 신앙이 기독교에 도입된 두 공의회 중 첫 번째 공의회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유세비우스는 성서 기록의 필사본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성서가 오류를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거의 초인적인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마태복음 28:19의 고대 사본에 충실한 성경 번역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자체인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명령했는지를 보여주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연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행 2:38).

다른 구절들은 올바른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아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세례를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1-5).

성경이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도록 만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요한일서와 마태복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5개의 성경 본문에도 편향된 번역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원래 성서 전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원본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당시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번역된 이 책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실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이끈다. , 그들은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Editora Advertência Final 책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뿐이시니라”라는 책에 실린 진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평되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서, 그 기별에 포함된 명령, 즉 “그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계시록 14:7)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이라는 결론을 내 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 교회의 선언을 반복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으니 (신과 주가 많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 (1절). 고린도전서 8:6).

그러나 본문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안식일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을 암시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계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출애굽기 20:8, 11).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메시지가 제때에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룩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시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신명기 5:12).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새 계약에서는 그분을 존경할 의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1:15-17).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이것을 율법의 다른 계명들과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히 1:1).

10:16). 우리는 이 모음집 제6권에서 이를 입증하는 경전적 증거를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가 따라와서 말하되, 그가 넘어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국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계시록 14:8)

역사에 따르면 고대 도시 바빌론은 기원전 531년에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고대에도 그것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적은 현재의 이라크 영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이 “바빌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이름을 딴 실제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가 그녀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도시의 시스템을 복제한 시스템을 의미해야 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군주제 정부였으며, 그 정부에서는 시민 지도자인 왕이 최고 종교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었습니다. 바벨론 지방의 두라 밭에서 길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방백들을 모으라 명령하니...

각 지방의 총독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봉헌식에 참석하려고 하였더니 이에 총독들과 각 도의 모든 방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거룩하게 하려고 모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더라. 전하는 자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백성들이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다니엘 3:1-6).

바빌론 왕은 도전 없이 순종해야 하는 종교와 교리, 가르침을 정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인정받는 신성의 대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바벨론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숭배하고 주일의 첫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기초였습니다. 묵시록의 메시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종교 형태를 재현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묵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교회가 바벨론 숭배를 부활시키는 일의 주인공임을 지적합니다. 읽기 전에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남편에 비유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엡 5:24, 25).

“내가 보니 여자가 짐승을 타고 앉았으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계시록 17:3, 5)

스스로를 “어머니”라 칭하며 바벨론의 예배 형식을 재현하는 교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드레(Madre)는 스페인어로 '어머니'이다. 이 교회는 주일의 첫날을 예배를 위해 구별된 날로 선포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숭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신자들이 의심 없이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또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새긴 형상 숭배를 제재합니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주로 그녀에게 적용됩니다. 그녀는 기독교 세계 전체에 바벨론 예배의 모델과 형태를 소개하는 책임을 맡은 교회인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면 그녀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설립된 다른 모든 기독교 종파는 사실상 바빌로니아 숭배의 일부를 채택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교회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선포하거나 삼위일체를 숭배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안식일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과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결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언어로 얼마나 완전하신지 주목하십시오. “타락”이라는 단어는 본문에 두 번 등장합니다. 이는 주의 깊은 연구자가 이 단어가 하나 이상의 교회의 타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이미 무너졌다가 다시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는 다음에도 적용됩니다.

타락한 개신교 교회 - 고대 바벨론의 교회와 공통된 교리를 갖고 있는 모든 교회.

여기서는 괄호를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 독자들은 이 책이 교회를 비판하는 목적, 즉 나쁘게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겨두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오류와 그에 따른 타락을 질책하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가능한 한 빨리 당신에게 경고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출판사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 단순히 그 주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변명합니다.

2 -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며, 그 결과는 그분께 맡깁니다.

나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당신은요?

둘째 천사가 지적한 때는 바빌론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때입니다. 오늘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다른 이교도 국가들은 여전히 가톨릭 교리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물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여전히 교황과 그의 교리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한. 성경에서 음료는 교리를 상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순전한 것을 원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학생의 마음으로 그분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족 부대에 담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누가복음 5:27). 그래서 와인은

바빌론이 모든 나라에 준 것은 그 교리입니다.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라고 불리며, 이는 이 교회가 채택하고 가르치는 인간의 교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분의 진리를 배반한다는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모닥불, 단두대, 기타 고문 도구에 대한 이야기는 가톨릭 사제들이 자신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분노를 묘사합니다. 로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무력한 곳에서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이단자들'에 대한 과거와 동등하고 그보다 더 큰 잔혹행위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죄는 자신의 양심의 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은

장래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가톨릭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가 자신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요일 휴식 준수와 죄인의 영혼 불멸과 같은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보편적인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묵시록의 두 번째 천사가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교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맞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가, 이것이 각 인간이 내려야 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진리에 맞서 싸우는 세상의 모든 세력에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강력한 천사가 파견될 것입니다. 귀하의 메시지는 지구 전체에 전달될 것이며 옳은 편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나 지옥의 어떤 세력도 그들을 흔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 셋째 천사의 메시지

“셋째 천사가 따라오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분의 진노의 잔에 섞임이 없이 준비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계속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도 밤낮 쉬를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의 견인이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6-12.

이 경고는 하늘이 인간에게 보낸 가장 무서운 위협이다. 어조의 중력은 옳은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쉬우므로 오류를 선택할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잘못된 편에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을 택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셋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눅 1:41, 42).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인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엡 5:18)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의미에 대해 이해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어.

하나님의 법은 사람, 별, 자연의 요소, 동물, 물고기, 새를 다스립니다. 그 주체인 우리는 자연의 한계를 따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고, 구름 위를 걸을 수도 없고, 가장 가까운 별을 방문할 수도 없고, 불 속에 손을 넣어도 다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죽음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자연 법칙이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것처럼 가장 큰 법칙인 십계명을 위반하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 빌립은 땅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사라졌다가 저기서 나타났.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멈춰 있으라고 명하니,



하루는 24시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초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니 그 풀무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진 사람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시리아 군대는 모두 눈이 멀었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연법칙을 고려하면 이 모든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간은 위성 추적 시스템, 레이더, 스캐너에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며, 피를 탐하는 인간과 인간 군대의 전선을 들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며, 폭탄이 가득한 지뢰밭을 다치지 않고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며, 인간의 교리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천국의 참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은 그들의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네가 맞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갈 3:1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막 9:2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웅은 편에서는 것이 너무도 쉬워서 그릇된 곳에 머물러 있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이 뭉쳐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들은 1세기 사도들처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사도행전 9:16) 그들에게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땅에 돌을 던지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려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차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습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누가복음 1:37).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에베소서 2:8).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고후 1:19, 20).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요한복음 3:16). 그러면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을 받고, 그로 인해 성령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어떤 고통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게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8).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겪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차례 채찍질을 당하고, 체포되고, 죽음을 맹세하고, 땅을 떠돌며 이곳 저곳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섭리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범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격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천국을 위한 영혼들의 수확에 물을 주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들이 믿음을 통해 “불의 세력을 소멸”했다고 밝혔습니다(히브리서 11:34).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노래하다 죽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마취제” 역할을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그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어!” (로마서 8:37-39)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닥칠 무서운 결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이지 않고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계 14:9,10).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재앙을 쏟아부음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또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느니라”(계시록 15:1). 이것들은 지구상에 닥칠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큰 토네이도와 쓰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비하면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악한 일의 댓가를 연기하는 것은 엄한 심판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오늘날 자행되는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이 멀지 않으신다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의 때에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잔을 공중에 쏟으니... 열방의 성읍들이 무너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사 그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에게 주시니라...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 위에 내리니 무게가 한 달란트[무게 약 34킬로그램]나 되는 돌들이더라. 사람들이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계시록 16:17-21)

짐승의 추종자들에 대한 형벌은 돌우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많은 악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남은 자들은 그 후 곧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계 19:21).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상징적 언어로 확인됩니다. 짐승은 잡혔고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느니라”(계 19:19-21).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온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계 1:13-16). 그분이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입의 검”에 죽는 자들은 이때 멸망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땅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이 황폐하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없고... 내가 보니 사람이 없고 공중의 모든 새가 다 도망한지라”(예레미야 4:23-25). 죽은 의인들은 부활될 것이며, 산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끌어 올려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악인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악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죄의 선고를 받고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6)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지 천년 후에 악한 자들이 부활되어 함께 모여 최후의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불못에서 불타버릴 것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들은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20:11-21)

악인은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소모되어 죽을 것입니다. “보라, 그 날이 불처럼 타오르는 날이 오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가오는 날에 그들을 불사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악인을 밟을 것은 그들이 발바닥 아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이니라” (말라기 4:1, 3)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오바다 1:16)

이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본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고통의 연기는 영원무궁토록 지속됩니다." 단순한. 장작이 다 떨어지고 불이 꺼지면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이 있었다는 기억을 줍니다. 성경적 표현은 악인의 형벌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뜻이다. 죄의 전체 결과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되어 아무도 다시는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영원히 불타버릴 것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다서에서 우리는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본보기가 되었느니라”(유 1:7)는 것을 읽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라크 영토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불타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유황의 흔적이 있지만 불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일어나...소돔과 고모라와 온 평지를 바라보고... 그가 보니 땅에 연기가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이 올라가는지라.” 오늘날 그 자리에서는 그 당시 불에서 나온 연기를 볼 수 없습니다(창 19:27, 28). 묵시록의 의미는 상징적입니다. 반복합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라는 말은 그가 죄의 결과를 영원히 기억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며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느니라. 휴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디선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칠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그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4, 9-11) “제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 11). 그분께서 제안하신 안식의 날을 거절하는 사람은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부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본 카톨릭 교회인 바벨론의 멸망을 비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녀는 여자로 대표됩니다. “내가 보매 한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았으니 그 짐승은 참람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하였더라”(계 17:3, 4). 그녀가 탄 짐승은 그녀의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9절). 로마는 다음과 같은 예언에 나오는 일곱 산의 도시입니다. “로마는 테베레 강 유역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팔라티노, 아벤티노, 캄피돌리오, 퀴리날레, 비미날레, 에스퀼리노, 첼리오 등 일곱 언덕이 있는 역사적인 중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처: Wikipedia, 강조 추가). 교황청 소재지인 바티칸이 있는 곳은 바로 로마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황이 왕인 독립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교황은 짐승의 머리에 비유됩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니라”(계 17:9, 10). 짐승의 상징

교황권과 그 우두머리인 교황을 상징합니다. 13장에 묘사된 짐승의 다른 특징들은 이 해석을 확증해 줍니다:

1 - 짐승은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종교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겠는가?” (계시록 13:4)

2 - 그 짐승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계 13:7).

종교 재판소를 설립한 교황권은 “이단자”로 분류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는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는 박해하는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라는 상징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교황권의 표이다.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톨릭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일요일은 우리 권위의 표시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이전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출처: The Catholic Record, London, Ontario, 1923년 9월 1일(강조 및 강조 추가)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Our Sunday Visitor, Catholic Weekly, 1950년 2월 5일 (강조 추가).

일요일 준수는 교황권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짐승의 표이다. 여기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박해하는”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 일. 과거에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에 부합했지만, 오늘날 교황은 공개적으로 신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역사상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교황이 다시 이 특권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짐승은... 여덟째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7:11)\*. 오늘날 교황권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 교황이 짐승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분이 선포하신 주일은 아직 “짐승의 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교황이 집권하면 그는 박해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덟째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과된 의무로 전환될 것이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중세의 신자들처럼 짐승에게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휴무일인 '토요일x일요일'에 관한 이슈는 이를 둘러싼 위기로 인해 순간의 화두가 될 것이며,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황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 이 주제는 "The Eighth"라는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그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쉴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대신에 짐승이 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영원히 거부하고 교황과 일요일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준수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순종의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 ”

이미지는 원본의 복사본입니다. 짐승은 박해하는 종교 세력을 상징하므로 그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다른 교회들이 일요일을 쉬는 날로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개신교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황권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들이 더 나아갈 것이며 또한 반체제 인사들을 향해 나아가는 교황권의 방식을 본받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정부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것입니다. 교황이 선고하고 국가가 이를 집행했던 옛 종교재판이 개신교의 주도로 현대판으로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믿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영향력을 거부할 때 그들은 매우 잔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도 그의 형상에 경배할 것임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가톨릭교인과 개신교인 모두 같은 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의 표시도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권위로 정한 안식일인 일요일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문제가 주요 논쟁점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연합하여 뇌물을 주고, 전복시키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인간이 정한 날에 굴복시키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경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것의 무서운 결과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온 땅에 들리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전쟁 중에 각 사람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의인과 악인 모두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날에 당신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매일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갈등이 끝날 때 당신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현명해지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어떠한 것이며 그 구성원들의 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녀를 만나고 싶나요? 이 모음집의 다음 책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참교회는 무엇입니까?”를 읽어 보십시오.

## 제6권: 다섯 번째 위대한 진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계 14:12).

하나님의 계명은 시내산에서 친수로 돌판에 모세에게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것을 신약에 제시된 율법의 요약(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새 계명”(서로 사랑하라)과 혼동하지 마시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17절의 십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기원전 1450년경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은 오래 전에 알려졌습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세상에 죄가 존재하기 전인 창조 주간에 이미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는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안에서 안식하심이니라.” (창세기 2:2, 3).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8)라는 계명을 기억하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 이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분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창세기 25:6). 시편 기자는 계명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니 그 계명들은 다 확실하니라. 영원무궁토록 견고하게 서 계시느니라” (시편 11:7, 8).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이 지속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 18)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율법을 성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셨으니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3, 4) 그분은 또한 새 언약에서도 계명이 옛 언약과 같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이해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8:8-10)

옛 언약은 십계명이었습니다(신 4:13).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계명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인간에게 제시하시며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 배신당한 남편이 아내를 용서했다가 이제 다시 충성 서약을 한 후 똑같은 결혼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과 함께 다시 확립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동일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별말씀을요.” 그리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나라 아래 있는 자는 자격을 얻었나니

정신이며, 법을 어기지 말라.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로마서 6:14, 15; 요한일서 3:4).

바울과 다른 모든 성경 저술가들과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한 점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죄가 됩니다. 간음 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간음하지 아니하고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12, 10,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온 천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적인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 14:12)이라고 묘사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아담 이후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졌던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의 믿음 . 그러므로 십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깃발”입니다. 믿음을 통한 순종의 경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천국, 영생의 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상대로 승리할 길을 찾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함께 알아 봅시다.

#### 계명을 지키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이는 그에게 속임을 당하는 수많은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나가서 땅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미혹하리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계 20:7, 8).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권세” (계 13:2)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그가 사용하는 속임수의 도구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을 이길 것이고, 따라서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42)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경고한 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 곧 마귀의 속이는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짐승이 일루미나티와 전체 피라미드 권력 구조, 악마의 눈을 가진 피라미드, 우리가 살고있는 "매트릭스"를 명령하기 때문에 그 힘에서 자유롭고 따라서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시스템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행 로고, 자동차 제조업체, 프리메이슨, 뮤직 비디오 및 가수 쇼, 스포츠 행사, 유명 TV 및 YouTube와 같은 인터넷 채널, 심지어 교회의 로고에서도 피라미드와 관련 기호를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1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일 5:2).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 허영심과의 모든 연결을 끊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세상과 개인적인 실수를 미워하고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들의 뜻에 반하여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분에게서 영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뒤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8). 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감동시키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를 확신하고, 그분의 뜻에 동의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새로운 콘서트의 약속

하나님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라” (히브리서 10:16)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해력 있게 글을 쓴다는 것은 계명이 공평하며 순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행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양심에 죄를 깨닫게 하자마자,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8).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를 “양심에 누우치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일 5:3). 그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20) 아버지가 길을 건너기 전에 아들과 악수하려고 손을 뻗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의 길을 건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손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이십니다. 맹렬한 자동차처럼 선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트래픽”이 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고 반드시 저편에 무사히 도달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다음 차선 이후에 차선을 건너도 괜찮은지 알기 위해 차 너머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순종을 굳게 다짐으로써 우리는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는 넘어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누구도, 사람이나 악마가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애착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노라” (요한복음 15:10).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율법의 한 가지 점을 이미 동화하고 순종했음을 확인하실 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설득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이 정화되고 희어지는 이러한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협력하며, 우리 자신을 그 과정에 복종시키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지시와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외면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고 계속해서 홀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져서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26) 우리 마음 속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적인 어려움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초대를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마음에 진실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십니다. 마음 속에서 영의 활동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일 2:1). 그러다가 마침내 영의 감동에 굴복할 때 성화의 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과정은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쉬고 무덤에 들어갈 때 끝납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니 그날의 나;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하니라” (딤후 4:7-9). 그러나 성경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영의 역사가 살아 있는 동안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집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 있는 동안 마지막 죄를 제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깊어지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잠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길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확고해지며 넘어지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끊임없는 복종을 통해 옳은 것보다 그릇된 것을 선택하도록 감동을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중재하지 못하시더라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잘못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으니라” (눅 5:31)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중보자 없이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실 때, 마지막 일곱 재앙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계 15:1, 16:1).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지구상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묵시록에서는 그것들이 비탄 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십사만 사천이다(계 14:1-5). 십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단번에 죄 짓는 선택을 멈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 창조주와의 개인적이고 가시적인 교제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144,000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당신과 나는 그 큰 날에 살아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기록된 바 사마리아의 삼킨바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5:51-54) 아멘! 할렐루야!

#### 하나님의 언약: 믿음 - 인간의 몫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8) 고 덧붙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1)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그분과의 접촉과 우정의 열매이며, 우리는 친구들의 말을 믿으며 이것이 공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문제에 대해 더 잘 반성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갑작스러운" 생각에 우리는 몇 번이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매일 우리에게 말하며 예수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조언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고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다음 번에. 성경은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22).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사고, 강도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감사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는 성서의 한 구절을 묵상한 후에 읽은 진리의 힘에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는 여러 경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문제는 하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도움을 찾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믿음을 낳고 키워준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가가는 직접적인 통로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분의 손길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접촉을 통해 그는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고 말했습니다.

##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분의 아들을 인간의 육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믿음, 곧 예수 믿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계 14:12).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했고 항상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에 항상 충분합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 거듭나는 사람은 “순종하는” 신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신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도 없습니다. 믿음에 결함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의 선물에 결함을 돌림으로써 당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상된 장난감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니요, 그는 먼저 테스트하고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새로운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아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그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가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 혹독해서 다른 사람이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그에게 지우셨음이니라 (이사야 53:6). 지옥의 세력이 그토록 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강력한 공격을 가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와와의 싸움에서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곳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인류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믿음은 시험을 견디어 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다가오고 있으나 그는 나와 관련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30). 그분 안에는 사탄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이라도 범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믿음의 선물은 시험을 받고 승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선물, 즉 “하늘에 있는 계측 기관의 품질 인장”이 있는 선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할 때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을 “약한 믿음”이라고 부르며 결함이 있다고 정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변명이 금지되면, 우리는 불순종은 믿음의 부재, 즉 “불신앙”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불신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불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3:18, 19; 로마서 14:23).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는 실패함이 없는데, 신자가 시험을 받을 때 불순종하는 일이 왜 이토록 자주 일어나는가? 이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오류를 위해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증보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이해됩니다: 우리가 의식에 도달한 영적인 빛 속에서 걷는다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분의 계명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따라; 만일 우리 양심이 우리를 죄책으로 삼지 아니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르고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방식, 즉 육신에 따라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성경 공부와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탈출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이 천 페이지가 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올바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사람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성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다른 역본에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다른 본문이 있더라도 성경 전체는 계속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를 공부하더라도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단순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요한복음 5:39).

말씀 연구는 전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17).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약속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정부 원칙과의 우정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읽은 것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항상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이 도둑질, 살인, 간음 등의 선택으로 신속하게 분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관계 등의 문제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태만하거나 피상적인 성경 연구생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사탄의 울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지런한 학생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상대로 행동하여 순종의 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인생의 과정은 우리에게 무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거룩한 책으로 다루셨습니다.

## 믿음의 척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룰 때 그는 성화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믿음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보다 더 알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3, 6)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므로써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장 편리하다고 이해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2:11).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들은 모두 선지자인가?” (고린도전서 12:28-30) 그러나 비록 서로 다른 영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믿음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1-13).

미래에 관한 예언을 다른 사람들보다 믿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덜 성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화를 위해 받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받은 믿음보다 열등하지도, 적지도 않음을 증명합니다.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순종을 불러일으키기에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사되는 예언의 은사와는 다릅니다. 즉, 예언을 믿는 사람이 믿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예언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목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정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의 믿음의 온전함이라 이 믿음은 우리로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에베소서 4:7).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는 항상 완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커질수록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받은 빛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믿음을 받았습니.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 지구에 있는 동안 신성한 뜻에 대해 얻고 적용한 지식에 비례합니다.

## 믿음의 표현

신앙고백과 참된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위한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믿음은 항상 신자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있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불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 “그녀가 온전하게 되었다” 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22 - Cipriano de Valera Version, 1865). 그 뜻은 “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느니라” 또는 “믿음이 참된 것으로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제시한 결론,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야고보서 2:24)으로 입증됩니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믿는다”고 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비록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믿음이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가져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인간의 영적 집, 즉 마음의 새로운 거주자로서 마음 속에 그것을 확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합니까? 절대로!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굳게 정하였느니라” (롬 3:31). 아브라함과 다른 모든 죄인은 그가 행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순종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 외에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바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 소망이 헛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믿음이 없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고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신성한 명령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양심에 도달한 모든 빛에 순종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 양심과 생각으로 고발하든지 변호하든지 그 양심과 생각으로 증거하여 그 마음에 기록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 2:15)., 16).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모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파선한 것을 버리고” (디모데전서 2:19)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 믿음의 확실성

성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에 심어진 “확실성”을 보여 줍니다. 그녀는 너무나 확고하고 완벽해서 한 순간도 패배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에 직면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과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에 관한 성경의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분의 여러 말씀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 앞에 겻세마네의 고난과 불공평한 심판과 갈보리가 놓여 있을 때, 그분은 승리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7:11). 조금 전에 그분은 다음과 같이 승리를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33). 그분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고 있으나 내가 그를 깨워 주리라.”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11, 23). 체포되기 며칠 전에 그분은 자신의 승리와 종보자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끝날 것을 예상하셨고,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 32).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듯한 폭풍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실 때까지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배 위로 파도가 일어나서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물에서 방석을 베고 자고 계셨습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고요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4:37-40)

때때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29).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받은 예수님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고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의 천사에 의해 임명된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계시록 14:12).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사람들에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동일한 믿음의 은사를 받도록 권유하여 그들도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악마. 그리하여 소망하는 모든 사람도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아멘, 이제 오세요 주 예수님!



## 여섯 번째 위대한 진리: 하느님의 참된 안식의 날 -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고치시는 날 - 토요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주의 첫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안에서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2, 3). 그리고 당시 지구상의 유일한 거주자였던 첫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반역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을 불순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아담은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26). 그 후 세상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반역자들의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모든 시대에 계속 그러했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임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반역자들 사이의 결혼의 결과로 악이 너무 많아져서 지상에는 참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 6:1-5, 8).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에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홍수가 닳을 때 생존한 여덟 사람, 즉 그의 가족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가 계시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이야기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두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노아의 막내아들 함의 후손들은 가인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손자 니므롯(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우고 부모의 죽음을 복수할 목적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짓는 데 헌신했습니다 (창 10:6-10).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충신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인 '십계명' (신명기)을 전파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4:13).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26:5).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충신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지상의 “금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사건을 예상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백 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창 15:13). 기한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숙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느니라” (출 2:23, 24).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데려가시고 그들을 그분의 “황금 실”, 즉 그 세대 이후로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선택된 백성으로 확인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그의 언약 곧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4:13). 그리고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의 계명을 반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8). 아담 이래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세대는 안식일을 안식일로 아는 지식을 보존해 왔습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의 이야기와 병행하여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노아의 증손자이자 반역적인 함의 손자 니므롯은 반역자 세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땅에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라”는 신의 명령에 어긋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야,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우리가 온 지면으로 흠어짐을 면하노라” (창 11:4).

니므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여 어머니에게서 담무즈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사냥꾼이 되었다” (창 10:8,9).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니므롯이 죽은 후,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이단 매춘부였던 세미라미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죽은 후 육체에서 분리된 니므롯의 영에 의해 잉태되어 태양신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고, 그러면 그녀의 아들은 아들 신, 즉 구속하는 소년 신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태양(니므롯) 숭배가 확립되었고, 또한 소년과 함께 어머니 여신에 대한 숭배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배 시스템은 Nimrod, Semiramis 및 그들의 아들 Tammuz라는 세 사람의 숭배로 발전했습니다. 삼위일체 숭배가 확립되었습니다.

주의 첫날과 음력 달과 해를 삼위일체 숭배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은 “주 하나님, 해의 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므롯의 계획을 부분적으로 좌절시키고 바벨탑 건축자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건설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백성은 하나이요 언어는 다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일에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야,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여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건물 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도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5-9).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 집단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종교를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은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와 태양 숭배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피라미드, 삼위일체의 표현, 세미라미스의 아들 탐무즈(Tammuz)가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조각상과 같은 종교 요소가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위 일체: 첫번째 사람	삼위 일체: 두 번째 사람	삼위 일체: 제삼자
니므롯	세미라미스	탐무즈
인도		
수송아지	비슈누	시바
바빌론		
마르둑	금성	이슈타르
이집트		
오시리스	호루스	이시스
그리스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석류		
목성	화성	금성

태양 숭배에 바쳐진 날은 바벨 전역에 퍼진 가족들에서 “태양의 날” 또는 “주 하나님, 태양의 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람들. 영어에서는 한 주의 첫날을 'Sunday'라고 합니다. 태양은 "태양"입니다. 일은 "일"입니다. 일요일은 '일요일'이다. 독일어에서는 같은 의미의 날이 **sunday**입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서는 라틴어 "dominus"에서 유래한 "domingo"이며,

'주 신, 태양의 날'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각각 dimanche 및 domenica)로 된 주의 첫날 이름도 라틴어 dominvs에서 유래되었으며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일요일을 지키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한 셈의 후손 -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준수자. 안식일이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송배로 제정된 일요일은 단연코 가장 널리 준수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를 방향했는데, 아담의 시대는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약 2,600년이 지난 후에도 안식일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의해 항상 지켜져 왔습니다. 일요일은 나중에 인간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반면, 니므롯의 반역적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일요일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 준수가 영원히 그분의 백성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 영원한 계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는 옛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상쾌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31:16, 17).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포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기억하도록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창조를 지적하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시더니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담의 모든 후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1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표시로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시내산 이후 약 40년 후, 광야 순례가 끝날 무렵, 그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안식일 계명을 반복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스도 이전 8세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계명을 상기시켰습니다(이사야 56:2-4). 약 200년 후,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안식일 계명과 그 준수에 따른 축복을 상기시켰습니다(렘 17:21).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지적했습니다(겔

20:12, 20).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는 십계명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버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내가 아버지이면 내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이라면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리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임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돌이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말 1:6; 2:7, 8).

한편, 이교 국가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과 대조하여 태양일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실 당시 세계 제국의 주인이었던 바빌로니아인, 그리스인, 로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미 5:2).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토요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서시니라. 읽기까지 하였느니라” (눅 4:16).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위대한 설교에서 자신이 안식일 법을 폐지하거나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하늘과 땅이 있는 한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노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 18)

오래지 않아 예수께서는 안식일 가르침을 사람들의 계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의도적으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련의 규례들을 추가했는데, 그 모든 규례들은 모두 성경에 어긋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표현하기 위해 유대인의 책인 “미슈나”에 있는 두 개의 완전한 논문이 헌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인용합니다:

- '일'을 피하기 위해 손수건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 끝 중 하나가 옷에 꿰매어졌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 매듭을 풀 수 없고, 두 글자 이상 쓸 수 없으며, 두 글자 이상에 해당하는 공백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암탉이 토요일에 낳은 달걀은 팔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토요일에는 거울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토요일에는 불이나 촛불을 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이방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 토요일에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땅에 침을 뱉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 토요일에는 대략 천 미터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갈지 계획할 때 범법에 빠지지 않도록 그 거리가 “안식일의 길” (사도행전 1:12)을 벗어나는지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참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시간을 사람과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바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잡지 아니하겠느냐? 그걸 들고 들어올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토요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12:11, 12) 그리고 성경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몇 가지 치유 기적을 보고합니다(마가복음 3:1-5; 누가복음 4:38, 39; 13:10-17; 14:1-4; 요한복음 5:1-15; 9:1) -14). 같은 맥락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날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구하는 것도 범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을 모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일행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느냐? 토요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2:1-7)

예수께서는 자신을 만물의 공동 창조자의 위치에 두시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8)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과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을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자신이 제정한 것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일 것입니다. 그는 교훈과 모본을 통해 안식일을 예배에 전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선한 일에. 사람과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안식일 계명이 담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 18)

그러나 그는 이날 모범을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방법, 즉 가계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이사야에게 영감을 주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네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네 뜻대로 행치 아니하며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아버지 야곱이니라 여호와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8:13, 14) 토요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마대 요셉은 돌아가신 주님에게 마지막 영예를 바치기 위해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누가는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동이 터였더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따라가며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눅 23:54-56).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일하러 돌아와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누가복음 24:1).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마태복음 28:20)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토요일을 쉬는 날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으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일을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3, 4, 9-11).

#### 안식일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

폐지된 율법은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의식법입니까?

시나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덕법과 의식법이라는 두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에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또 시나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출애굽기 31:18). 그분은 그들을 넘겨주실 때 안식일 계명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도 너희 세대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것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영혼이 끊어지리라.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시나산에서 말씀을 마친 후에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출애굽기 31장) 12-15, 18). 둘째 율법은 동물의 제사, 음식과 음료의 제사, 부정된 것을 만지거나 맛보지 말라는 일련의 금지 조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1년에 일곱 번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규정했습니다. 종교 달력 중. “1과 2 -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3 - 오순절 축일; 4 - 나팔절이라고도 알려진 일곱째 달의 첫날. 5 - 속죄일, 일곱째 달 십일. 6, 7 -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 내용은 레위기 23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의 매주 안식일을 언급한 후(레위기 23장)

23:3), 모세는 일곱 안식일 각각에 대해 규정된 의식을 설명합니다. 의식법의 모든 규례는 히브리 성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히브리 성소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에 규정된 그것과 그에 관련된 의식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보라,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마태복음 27:50, 51). 성소의 휘장 즉 휘장은 천장이 높았는데, 그 높이는 20미터가 넘었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손만이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있습니다.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레위기 4:15-17). 하나님은 그것을 찢으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피와 히브리 제사장들의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9; 히브리서 8:1, 2).

하나님께서 성소 봉사를 폐하셨으니, 성소 봉사를 위한 의식법도 폐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도들에 대해 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신자들에게 의식법의 규례를 강요하기를 원했던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의문의 율법과 그 조문이 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르는 그 법안을 우리 중에서 제하여 버리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2:14-16) 그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법의 교훈. 도덕법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안식일"이 유대 축제와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이 의식의 율법에 규정된 일곱 안식일임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그는 "토요일"이라고 썼습니다.

복수형 - 하나 이상을 나타냅니다. 도덕법은 주의 일곱째 날인 토요일(단수)만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한 안식일이 도덕법의 넷째 계명이 아니라 의문의 율법의 일곱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의문의 율법과 그 조례들이 폐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관해 가르치신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마태복음 5:17, 18).

### 갈라디아서에 대한 질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행위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인 믿음을 변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의식법 준수를 보존하려고 노력한 유대교도들의 오류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느님을 알게나, 오히려 하느님에 의해 알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섬기고 싶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기초로 돌아가겠습니까? 당신은 일, 달, 시간, 연도를 유지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갈라디아서 4:9-11)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식법이었습니다. 의식적인 토요일, 절기의 달, 추수와 희생의 때, 그리고 소위 "안식년" - 매 7년에 한 번은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신명기 15장). 위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안식일의 폐지를 선언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는 은혜로부터 타락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5:4) 축복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옵니다. 갈라디아서의 두 가지 목적은 어떤 순종의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 -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예: 성령을 받음 - 갈라디아서 3:1, 2, 9, 14); 2 - 하나님의 용서(칭의)와 그를 위한 하늘 처소를 보장합니다(갈라디아서 2:16; 3:11, 18, 22). 그러나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죄를 짓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순종하지 아니한 옛 사람)을 다시 세우면 나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갈 2:17, 18). 참된 신자는 그의 믿음의 결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가 믿음의 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주의 계명은 다 의로우니라"는 계명에 따라 그것을 지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5; 시편 119:172)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갈 5:18).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반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우리가 율법과 조화되는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갈 5:22, 23).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결코 도덕법의 폐지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전 로마서에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의 가르침을 강화하고, 개종한 바리새인들이 그 교리와 연관시킨 오류를 깨끗이 씻어 줍니다.

기독교-유대교인. 다음에는 로마서의 복음과 안식일과의 연관성을 다루겠습니다.

### 로마서에 나타난 은혜의 경륜

저자가 첫 장에서 밝힌 이 편지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로마서 1:15)입니다. 로마서에는 이 교리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중적인 가르침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제 형편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니 기록된 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 3:19, 20).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로마서 4:20)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세요. 유대인은 본성상 비유대인보다 낫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9). 그러므로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 할례 자(유대인)를 믿음 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이방인)를 믿음 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로마서 3:30) 라고 썼습니다 .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는 또한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 입니다 .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9, 22-24, 28). 구원을 위한 은혜와 믿음의 은사의 필요성에 관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조건의 평등을 옹호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방인으로 여겨졌을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 :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전가되었는가? 할례받지 않은 상태”

(로마서 4:9, 10)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자, 그의 믿음은 할례자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이든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 무할례자들이...) [믿는 이방인들의] 또한 할례받은 자들뿐 아니라 [ 믿는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 행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4:11, 12).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폐하여지느니라” (로마서 4:14).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만이 새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양심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1, 14). 이런 식으로, 손끝에 성경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양심에 가르친 성경의 진리에 자신을 복종시킨 인도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아함.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별말씀을요!" (로마서 6:14).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요일 3:4 미국 킹제임스 성경).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겠느냐? 별말씀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다 의로우니라."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율법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또한 넷째 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는니라(롬 8:1-4, 시 119:172).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것처럼(갈라디아서 5:4) 정말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축복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옵니다. 참된 신자는 믿음의 결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믿음으로 그는 성령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계명에 따라 그를 지키며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 새 언약

첫째, 즉 "옛"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규정하신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쓰셨느니라." (신명기 4:1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확립하신 것을 바꾸신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의 반복이요,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백성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리라는 약속을 더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31)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혈통의 혈통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은 자를 유대인으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자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28, 29)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과 은혜의 시대에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다루면서 그는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의 말을 반복합니다.

직분은 더욱 아름다우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확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왜냐하면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었다면 둘째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들의 손을 잡던 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이해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와 죄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들의 범법을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하겠습니다. 새로운 노인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제 낡고 늙어가는 것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6-13) 그리고 신약성서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그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4, 7-11)

간단히 말해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발표하신 것과 동일한 계명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낡은 것의 반복이다. 그것을 제시하는 시스템의 변화 때문에 "새로운"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성소의 예배를 통해 언약이 선포되었는데, 그곳에서 죄 많은 제사장은 참 제사장(그리스도)을 대표하고, 짐승의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대표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가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얻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하는 자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리라” (말라기 2:7). 새 언약에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자의 죄 사함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중보를 통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예배자에게 보내 십니다. 이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도록 인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써 선포됩니다.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구원자로 제시되지 않고 이미 오신 구원자로 제시됩니다. 미래에 죄와 공로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18) 를 받으신 그분으로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그분이 소유하신 권리와 권세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매일” (마태복음 28:20) 우리 곁에 돕는 조력자이신다는 확신.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가까이 계시고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외에도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계시록 3:20).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8:6)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히브리 제사장인 레위인의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습니다. 그는 육신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히브리 성소의 직분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실 것을 보이셨느니라 (마 27:50, 51). 따라서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요” (히브리서 8:2) 인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기초한 새 언약이 첫 언약을 대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십계명(따라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첫 번째 계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의 형태 로 이를 대체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행하신 일과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보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기 위해 우리만큼 죄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에게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요 인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이시니라 (딤후 2:5) 그 분은 우리의 유일한 고해신자이시며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비밀을 그분께 말하며, 응답을 받고 우리의 불안이 진정으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언약의 하늘 성소의 직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반드시 없애 주실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요일 3:4) 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소의 예배와 그리스도의 예배 사이에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바울은 옛 언약의 히브리 성소의 의식과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매년 계속해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거기에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10장이 끝날 때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함으로써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며, 다음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생명나무의 권세를 받고 문들로 그 성에 들어가리라” (계 22:14).

## 사도들의 모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마태복음 28:19)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하늘이 존재하는 한 지상에서도 계속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바꾸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17, 18).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율법과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심지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에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리신 직후, “준비일이었고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따라가며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토요일은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해 매우 거룩하게 여겨져 그 시간 동안 주의 몸에 영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처음에는

주의 날”, 일요일, “새벽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니라” (눅 23:54-24: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니라” (마태복음 4:16).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들도 네 번이나 같은 일을 했다고 알려 줍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을 마친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위로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으로 잠잠하라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행 13:14, 16, 43, 44).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에 관하여 강론하며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이 합당함을 논증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더라” (행 17:1-3).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하니라.” (사도 18:1, 4)

이 마지막 기록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음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할 곳이 있을 줄 알고 성문 밖 강독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우리 말을 들었더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그의 집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유하라 하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6:13-15)

그러므로 사도들은 가르침과 모본을 통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로 선포했으며, 그것이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이 그 날에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 기독교 시대의 일요일과 기독교 이교화에서의 일요일의 역할

사도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쳤지만 예언적 영감의 영을 통해 그들이 죽은 후에 교회 내에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자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나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너희가 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과 양 떼를 잘 돌보아라. 내가 떠난 뒤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들은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행 20:25-31).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갑자기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해산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모독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심을 인하여 거짓된 말로 너희를 장사하리라”(베드로후서 2:1-3).

바울과 베드로의 예언은 곧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주후 66년경에, 베드로는 주후 67년에서 68년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미 오늘날 교회의 합법적인 교부 중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지만 예언된 늑대 중 한 사람이었던 순교자 저스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교주의에서 비롯된 이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태양의 날 (4세기까지 로마제국에서는 주일의 첫날을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음)에 모였는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첫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성의 날 전날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곧 태양의 날에 그분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 Justin, 66-67, I – Apology, pp. 6, 427-31.

불행하게도 역사는 일반적으로 배도가 일어나면 대다수가 잘못된 길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세벨과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도록 백성을 인도할 때도 이랬으나 오직 엘리야와 칠천 무릎만은 그 거짓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머지 국민, 대다수는 잘못된 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 날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곧 그 당시 교회에서 오류를 가르쳤던 대다수의 신자들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즉, 늑대는 진정한 목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신실한 신자들은 반체제 인사, 반역자,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다수가 이교의 안식일을 선호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성경의 계시가 아닌 전통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삼위일체, 새긴 형상 숭배, 물뿌림 세례 등 다른 모든 이교 교리가 교회에 도입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이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추종자들은 극심한 박해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유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에게 “시저 만세”라고 인사하고 그를 하나님의 합법적인 대표자로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콜로세움은 그리스도인들이 야수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로 이교인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국에 불충한 것과 같습니다.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명령 이후 10년 동안인 서기 303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끔찍한 시련의 때에 관하여 예언적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10).

그러자 하나님의 안도감처럼 보이는 것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의 최악의 무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박해를 멈추는 칙령인 관용칙령에 서명했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교도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는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관용' 장면의 정치적 배경이 진실의 진짜 함정을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콘스탄티누스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자기 삶의 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기독교인들이 제국 인구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막시밀리안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그들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기면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종교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정치적 움직임.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하여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이행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행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는 또한 인구의 또 다른 부분인 이교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주교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와 이교의 혼합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수행했으며, 이는 그 이후로 로마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안식일이 이교의 안식일과 동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경받는 태양의 날을 경배해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서기 321년). 그리고 이미 200년 동안 배도의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주교들은 바로 이날을 경배하고 권력과 돈의 대가로 황제를 기쁘게 하고자 기꺼이 이 일에 기꺼이 황제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칙령을 존중하는 주교들, 즉 대다수가 총애를 받았고, 나머지 주교들은 점차 추방되었습니다. 황제는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서 대다수의 주교들(이 시점에서 이미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배교자들)이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되는 것에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이 법령을 받아들였는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위협이 수반되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공식적인 로마 교회의 지침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교의 전통, 교회 교도권의 교리가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권위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사람들의 손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교들은 새로운 법령을 작성하여 교회에 부과함으로써 신자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구약의 모든 족장들이 지켰던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잊혀졌느니라. 안식일은 예수께서 그 주인이 되어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분은 지상 사역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제국 교회의 지도자들인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에 의해 망각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역사상 '암흑시대'로 알려진 시대의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만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배교가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증거 없이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북아프리카 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는 여전히 성경의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친 배도 끝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에 성서 공회가 형성되었으며, 그 활동을 통해 수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안식일, 즉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번성했습니다. 배교자들이 안식일을 바꾸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도 승인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요...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이는 옛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상쾌하였음이라.” (출애굽기 31:15-17)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얼룩을 제거하실 때, 그것은 회복된 새 땅에서도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을 것임 같이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후손이 되고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매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아오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이사야 66:22, 23).

##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역사의 시작부터 죄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께서서는 토요일이 다른 날과 다른 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창세기 2:2, 3). 그 안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행하던 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곱째 날에 대하여 어떤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으니... ,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자신도 그의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동안 너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모두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출애굽기 16:29).

집 청소, 요리, 옷 준비, 쇼핑 등 처음 6일 동안 수행한 기타 작업 활동도 중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면, 간단히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네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이사야 58:13, 14). 그러므로 토요일에 연속극, 주님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것, 스포츠 경기, 강당 프로그램을 보는 것, 파티에 참석하는 것, 오직 우리의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어린이용 장난감과 게임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전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준비는 가족의 일정이 계획되는 훨씬 일찍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다음 계명에 따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10, 11) 한 주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토요일이 왔을 때 주님의 날을 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우리의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저귀, 약, 음식 재고 계획, 차 채우기 등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일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매주 일요일에 한 주를 계획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몇 주 안에 토요일을 준비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는 계획대로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근무일 중에서 금요일은 가장 뛰어난 준비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리라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어들인 것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매일 수확하는 양의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그것을 수확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대로 ...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감절의 떡을 거두었으니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신지라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는 낮에는 이틀 동안 먹을 빵을 주십시오. 모두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출애굽기 16:5, 6, 21, 22, 29). 예수님 당시까지 참된 교회의 성도들은 여섯째 날을 준비일로 세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더니. 그리고 그를 꺼내어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두었습니다...이 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이 새벽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도 따라가며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눅 24:54-56). 한 주가 올바르게 계획된 점을 고려하면 토요일은 최종 조정의 날입니다. 토요일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를 마무리하고, 옷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습니다.

## 금요일의 일몰

성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신성한 곳의 “안뜰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 백성은 안식일에 그 문 입구에 절할지니라”(에스겔 46:1, 3). 그러므로 토요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질녘에 성도들은 하나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찬양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간단한 기도와 짧은 성경 말씀 묵상, 또 다른 기도로 끝나는 예배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며, 예배가 길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하여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족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창 12:7, 8; 13:18). 다음의 예를 보면, 신자라면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찬송가 몇 곡을 선택하게 하고 목상을 위해 선택한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과 해설에도 참여하게 하십시오.

#### 토요일 예배

토요일마다 예수께서는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나타나사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니라. 그리고 그 책이 그에게 주어 족습니다.”(누가복음 4:16) 그분의 모범을 따라 신자들은 토요일에 성전 교회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모입니다(골로새서 4:15).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안겨 기도해 달라고 어린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들을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태복음 19:13, 14; 마가복음 10:16) 자녀들이 성경의 교훈을 받고, 쉬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에 예배의 첫 번째 부분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예배가 지치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4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토요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2:5)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를 그 전제로 드리고” 번째는 매일 드리는 번제물 외에 매 안식일부터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며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하리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임이니라”(민수기 28:9, 10; 말라기 2:7). 교회에서 말씀을 사역하는 것, 인터넷, 라디오,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설교를 방송하는 것, 이 중 어느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토요일에 떠날 필요가 없는 모든 일은 다른 날에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설정된 장비를 켜고, 최신 오디오 및 비디오 테스트를 수행하고, 카메라 조정을 수행하고, 예배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기타 활동은 그리스도 보시기에 범법이 아닙니다.

예배 후 - 토요일 외 시간

예배 후에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저희가 회당을 떠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실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막 1:29-31)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냉정하게 형식적으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식일에도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까이 섬기고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분이 나오시는지 지켜보고 있으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나, 악을 행하는 것이 옳느냐?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분개하여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밀자 다른 것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막 3:1-5)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예상치 못한 필요가 생겨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배고픔이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옷이나 약을 사야 한다면 참된 신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토요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밭으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따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시오? 그들은 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그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2:23-27)

아이들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야외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배 후 오후 시간을 바쳐 그들을 자연 경관을 묵상하고 꽃과 나무, 동물, 강과 호수에 남겨진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창조된 만물을 통하여 깨닫고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0). 가까운 공원, 호수, 강, 산, 들판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교육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작은 마음은 깨지지 않을 부드러운 끈으로 그리스도와 사랑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기록된 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토요일의 일몰

유대 시대에는 “아침 제사”와 비슷하게 “저녁에”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출애굽기 29:39, 41). 이에 따라 신자들은 토요일을 포함해 매일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찬양의 찬송으로 시작하여 간단한 기도와 짧은 성경 말씀 묵상, 또 다른 기도로 끝나는 예배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며, 예배가 길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하여 예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장의 몫이었습니다(창 12:7, 8; 13:18). 다음의 예를 보면, 신자라면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찬송가 몇 곡을 선택하게 하고 묵상을 위해 선택한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과 해설에도 참여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기도에서 모든 사람이 주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에스겔 20:20).

안식일의 완전한 준수를 통한 성화: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치유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을 주었으니 이는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겔 20:12). 그 의미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특별하고 다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부에 검은 점이 몇 개 있는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것을 먹기 위해 준비할 때 결함이 있는 껍질 부분을 제거합니다. 펄프 내부에는 표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요리사는 과일을 찾아 제거할 때까지 과일을 더 열어야 합니다. 이 작은 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나 사람을 대하여든지 거리낌이 없는 양심”(행 24:16)을 가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유지하여 믿음이 파선되지 않도록 합니다(딤후 1:17). 즉,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에베소서 4:13)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취하러 오실 때 교회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엡 5:27). 우리 삶의 내면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결점, 무지로 인해 저지르는 실수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육체에서 “모든 얼룩”이 제거될 때까지 정화를 심화시키는 점진적인 작업입니다. 이 과정은 신자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그를 막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4).

안식일의 거룩함이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열매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의 사역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행해진 치유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합니다.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는 천장을 열고 침상을 예수님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그분께 기어가서 그분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40; 마가복음 2:3,4; 마태복음 9:27; 마태복음 9:20-22) 그러나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은 사람들, 그분께 나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의 길 위에, 그분이 그날 지나가셨던 장소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환자는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

베데스다 못가의 중풍병자:

“예루살렘에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 사람은 곧 나서 자리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요한복음 5:2-9)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사람도, 그 부모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저가 가서 씻고 다시 보니...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요한복음 9: 1-14).

구부정한 여자

“그리고 토요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열여덟 해 동안 앓는 영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이 굽어 전혀 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다가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고 곧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9:10-13)

###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더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거기서 가르치시니...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흔들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21-26).

### 페드로의 시어머니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누워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그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시종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29-31)

### 한 손이 마른 남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더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여 주목하고 있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그대로 행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느니라.” (누가복음 6:6-10)

### 물방울 남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 걸린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섰더라.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시어 치료해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4:1-4)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죄로 병든 영혼의 치유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건강을 회복시킨 사람들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한복음 5:14)고 경고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의 성격 결함을 치료하는 방법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는 일은 구하는 법을 모르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그분께서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롬 8:26)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심장”에 있는 결점, 즉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결점, 무지로 인해 저지르는 실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분의 정부 제안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에게 그러한 일을 할 권한을 줄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낮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있을 것입니다. “회당” 교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의 일을 행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을 목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그분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품 결함을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결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과 더 유사합니다.

이는 또한 정기적인 검사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았던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과도 비슷합니다. 의사는 올바른 처방을 제공하며 제때 치료하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그분과 함께하는 약속과 정기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숨겨진 허물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필요한 약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일은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며, 토요일에는 십사만 사천 명의 교회 회원들의 삶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겪게 될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계 1:1). 이 이름은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이니라”(계 14:4, 5). 그리고 일단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마지막 갈등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성품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태어날 때 마지막 환난이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는데 발과 머리 위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느니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진통을 하다가 해산하고 싶어 부르짖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니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 12:1, 2, 5, 6). 기호 번역:

여자 = 교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몸에 들어 될 것입니다. 이 신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에베소서 5:31, 32)

여자가 낳을 아들 = 그리스도께서 교회 자체들의 품성으로 태어나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노라”(골로새서 4:19).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휴거됨 = 이 승리한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상급: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이제 그 조각들을 종합해보면 계시록 12장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사는 자들도 보았느니라) 한 여자가... 산고를 하게 되었는데 (참된 교회의 자체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져 올라가니 (하늘 심판 때에 저희의 상이 정해져 있으니 저희가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일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순례 여행과 연관시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세요. “광야”의 때는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마지막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휴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광야의 때는 짐승의 통치와 일치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에게 경배하고...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계 13:3-5). 성경의 계산에 따르면 42개월(한 달은 30일에 해당함)은 1,260일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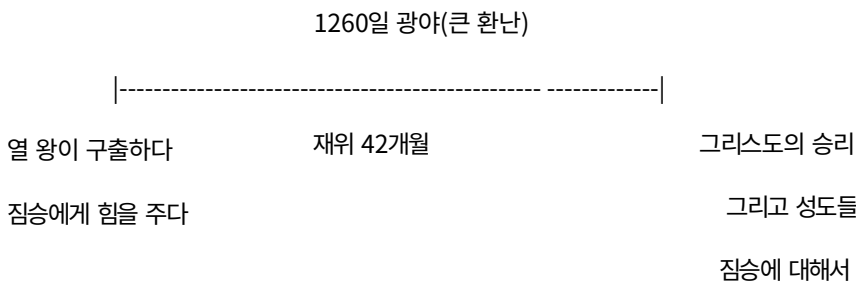
$$42 \times 30 = 1260\text{일}$$

\* 성경의 달의 길이를 확인하려면 창세기 7:24과 7:11을 비교하십시오. 8:4(5개월의 150일: 150을 5로 나눈 값 = 30일).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기간이 같은 기간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흔두 달의 짐승의 통치가 끝나면 일천이백육십 일의 광야가 끝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잠시 동안 받으리라. 이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양과 싸울 것이며 어린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있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충성된 자들은 이기리라”(계 17:12-14).

이해를 돕기 위해 위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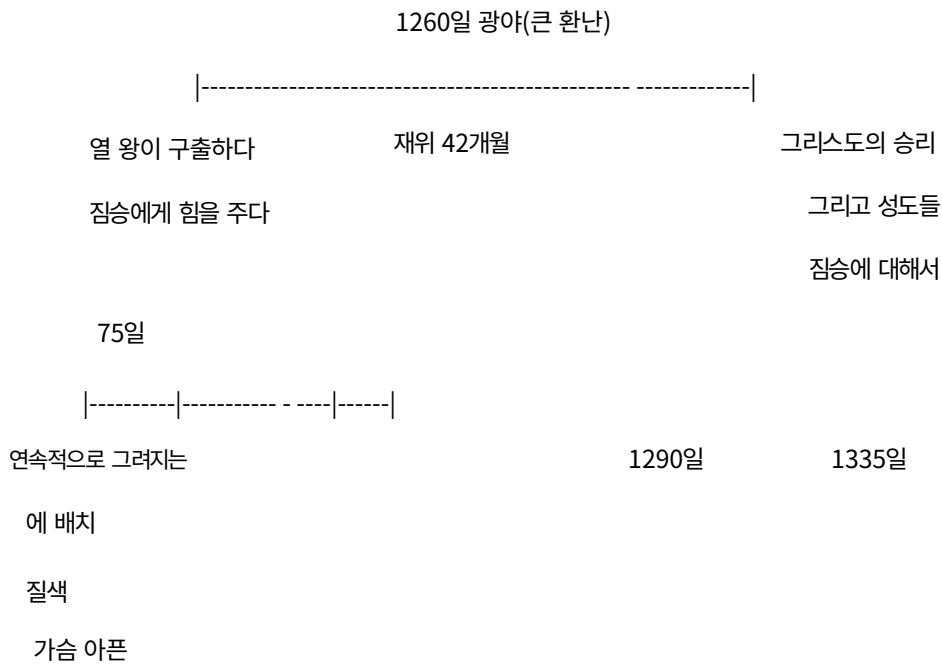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적인 설교에서 환난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 .” (마태복음 24:15, 16, 21) 그는 다니엘 12장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왕관을 거두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지날 것이요. 축복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천삼백삼십오일까지 기다리라”(다니엘 12:11, 12). 이 기간은 계시록에 언급된 기간보다 조금 더 길다. 두 기간 모두 함께 끝난다. 다니엘에 따르면 의지의 백성이 축복을 받고(계시록에 따르면) 짐승을 이기는 것은 그 마지막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다니엘 12:12)

“그와 함께 있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충성된 자들이 이기리라”(계 17:14)

따라서 두 개의 타임라인이 포함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1260일은 다니엘의 계산이 시작된 지 75일 후에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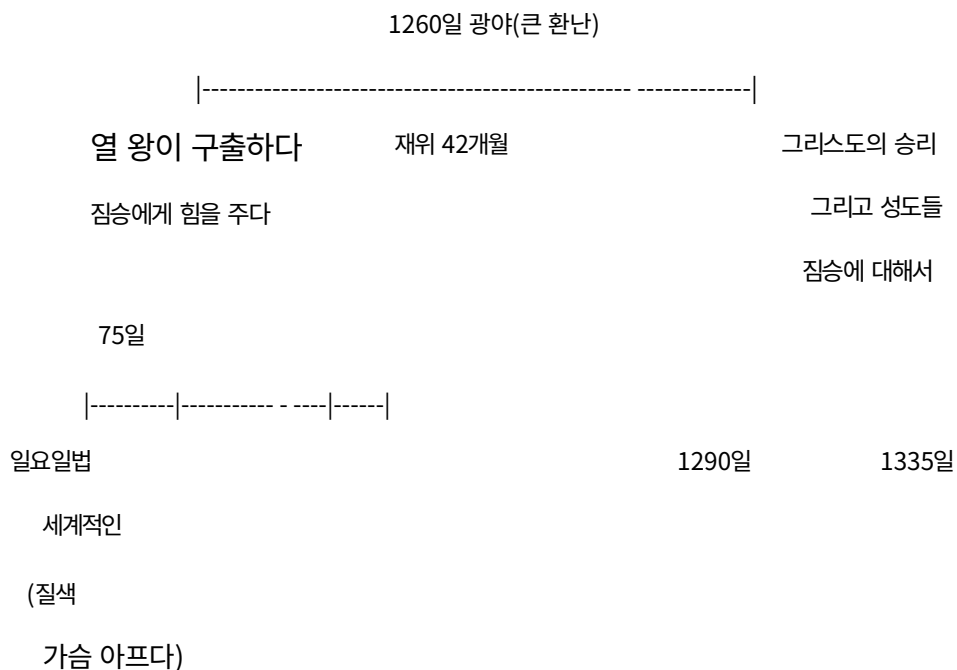


성경은 멸망시키는 가증한 일, 곧 “멸망을 가져오는” 가증한 일은 태양 숭배와 관련된 율법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 예를 들어 ..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보다 더 경솔한 일이 있겠느냐...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궁홀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겔 8:16-18).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라 황무케 하시며 땅을 뒤엎으시고 거기 거민을 흠으시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도 쇠약하고 쇠잔하도다... 사실 지구는 그 주민들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거기 거하는 자들은 황폐하리다”(이사야)

24:1-6). 지구 전역의 정부들이 연합하여 태양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법령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 서는 지구에 심판을 보내실 것이며 지구는 황폐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주님의 죽음」(Dies Domini)을 반포한 이래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종교 적 목적을 위해 일요일을 법으로 휴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브라질에도 일요일에 영업을 금지하는 '일요 일법'을 시행하는 도시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 일요일 옹호 운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원 래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날의 이름 자체가 이를 상기시켜준다. 여러 언어에서 주의 첫날의 이름은 이 이교 숭배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된 이름 - "Sunday"는 "태양의 날"을 의미합니다.

태양 = 태양; 일 = 일; 일요일 = 태양의 날

독일어로 "sonntag"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 랑스어 및 이탈리아어(domingo, dimanche 및 domenica)로 된 이름은 라틴어 "dominu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주 신, 태양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태양 숭배를 확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 지자들은 “율례를 변경”합니다. 그러한 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 하여 지키라”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옛세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출 20:8-10)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 (또는 전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부과되면 지구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그리 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구의 최종적인 멸망과 하나님에 의한 지상 정부의 전복을 향한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열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벤트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위기가 1335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실한 백성에게 짐승과 그 동맹자들에 대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의 이전 책들에서 짐승이 누구이며 그 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일요일 준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 장에서 연구한 내용과 우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정치-종교 운동과 일치합니다. 1335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 사이의 대조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하는지 여부로 드러날 것입니다. 짐승이 이끄는 땅의 세력들과 동맹을 맺은 한 부류는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지상 권위의 표인 표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음과 같은 그분의 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며... 안식일을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는 옛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회복이 되셨음이라”(출애굽기 31:16, 17).

다니엘 12장에 표시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그들의 손에 권세를 잡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치하고 그의 정부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은 탄압을 받고, 사회에서 추방되고, 비방을 받고, 심판을 받고,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받는 등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영원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언적 환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진 자들을 보았는데”.

(계시록 15:2)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에게 이르되, 주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덮으시리라. 그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해나 고요함도 그들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계시록 7:9-17)

한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날이 다가옴을 보고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던 신들이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 15).

우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을 전합니다. 미래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며 그분의 보호와 구원의 표를 받기 위해 신실하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정부와

이교의 날, 거짓 안식의 날을 정하는 법이냐?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느니라”(히브리서 4:9, 10).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른다. ...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는 네 생명이시니라”(신명기 30:20).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 일곱 번째 위대한 진리: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독에 대한 예수님의 백신

### 첫 번째 거짓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대적 사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즉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지 반역의 쪽을 선택할지 보여줄 수 있는 시험으로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6, 17).

인류가 사탄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정부와 신의 대조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은 뱀을 매개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아니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죽지 않도록.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창 3:1-4).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 아담에게 주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쌓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사망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러므로 불멸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에스겔 18:20)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생명의 기원과 사망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생명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즉:

땅의 흙 + 생기(하나님의 능력) = 산 영혼(살아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전 12:7). 무덤을 파는 동안 묘지 방문 우리는 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체는 썩어 땅의 일부인 "비료"가 됩니다. 영혼은 생명의 호흡과 땅의 흙이 결합한 것이었다. 호흡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흙에서 분리되면 영혼은 무너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의 영혼이 필멸의 존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이란 무엇이며 죽음 이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영혼이 그 사람 자신의 육체적 생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내 얼굴을 바꾸어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왜냐하면 육신의 영혼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10, 11) 그리고 예수를 통해 선한 성품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품을 지칭하기 위해 “영혼”(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영, 혼, 몸”이란 마음, 성격, 몸\*을 의미합니다. 성서에서는 영혼이 인간의 육체와 별개의 독립체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오로지 고대 이교 전통에서만 유래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후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으며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군요.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예복을 입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헌데가 잔뜩 걸린 채 그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죽어서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쳐 말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만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또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건너가고자 하는 자도 올 수 없느니라.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죽은 자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나아오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6:19-31) 이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었고 실제가 아닐 것이라는 증거는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품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더 나아가, 바울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모든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8) 고 말합니다. -10, 39, 40).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우리 포함)이 함께 거룩한 성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비유에 나오는 인물인 저속한 나사로는 오늘날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 즉 사후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도 없어져 이 세대 곧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아무 몫도 없느니라”(전 9:5, 6). “구름이 녹아 없어지는 것과 같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느니라. 그는 결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다시는 자기 처소도 알지 못하리라”(욘 7:9, 10). “음부도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사망도 주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니라. 구렁이에 내려가는 자도 주의 진리를 바라지 아니하리이다 살아 있는 자들아, 살아 있는 자들이 오늘 나처럼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사 38:18, 19).

다윗은 간음을 범했고,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판결이 취소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에 와서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었고 그는 먹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살아 있는 아이를 위해 당신은 금식하고 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은 후에 당신은 일어나서 빵을 드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이가 살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음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왜 지금 금식하겠습니까? 시간 되요



내가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까요? 내가 그에게로 갈지라도 그 사람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삼하 12:20-23).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고,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이 비유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 이야기를 지상에 있을 때와는 달리 선지자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살해한 자들에게 주실 보응과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더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오 참되고 거룩하신 통치자여 어느 때까지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과 형제로서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6:9-11)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있을 때 그분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은 거룩한 순교자들을 죽은 후에 제단 아래에 체포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환상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악한 보응을 주실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하늘에서 조사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들의 상이 무엇인지가 정하여진다. 이 경우에는 “흰옷을 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계시는 조사 심판에 대해 말하는 다른 구절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계 3:5; 마 10:31, 32; 눅 12:8, 9). 그러므로 제단 아래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살인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현일 뿐임이 분명합니다. 계시록의 가르침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네 형제의 피 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제 너는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형제의 피를 받았으니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창 4:8-11). 아벨의 “피의 소리” 역시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묵시록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악인을 처벌하실 것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영”과 정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을 확인하십시오: “다니엘 2:1; 고전 2:11).

## “수면”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를 잠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자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남은 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분명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행복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1:11-14). 하나님을 위해 죽은 사람은 모두 잠을 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잠자는 사람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희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니라 주님, 우리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3-17).

## 부활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가르칩니다. 잠자는 자들은 모두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서로 다른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8, 29). 요한계시록 19:11-21에서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로 예수님의 재림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상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계시록 20:4, 5) 아래 그래프에 설명된 것처럼 두 번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 재림

1000년

하늘에서 의로우신 그리스도 ,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성서는 여전히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느니라”(계 20:6).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 악인이 “둘째 사망”을 당했다면 그것은 이미 “첫째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두 번 죽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미 죽은 악인들은 1000년 후에 부활하여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악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느니라. 그들은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계 20:11-

20). 둘째 사망인 불못에 관하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풀무불 같은 그 날이 이르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가오는 날이 그들을 불사르리니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악인을 밟을 것은 그들이 발바닥 아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이니라”(말 4:1-3). 악인은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오바 1:16)\*. 아래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운명에 관해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그래픽 형식으로 요약했습니다.

두번째	1000년	최종 심판
오는	하늘에서는 의로운	비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의		악인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 ----- -----		
부활	부활	불의 호수
의인의	악인의	사악한 죽음
첫 번째	두번째	마치

부활

부활

한번도 없었어

존재했다

\*'영원한 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시리즈의 5권 '세 천사의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 설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성경적 설명을 보았습니다(요한복음 11:11-14; 살전 4:13-17).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 있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아무 몫도 없”지만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점을 언어를 통해 보여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의 반응도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함을 가리켜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막 12:25-27). 예수님은 이삭과 야곱처럼 “아브라함이 죽어 죽었다”(창 25:8)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죽음의 잠을 자지만 제2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 그녀에 비하면 그들이 무덤에 있는 시간은 잠시 잠을 자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무덤을 통과하더라도 영생을 얻습니다(요 3:16).

죽음의 시간은 영원히 잠시의 휴식으로만 간주될 것입니다.

죄인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죄를 짓는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5:26)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신자가 결코 무덤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그가 무덤에 내려가도 영생이 보장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다시 불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둘 다 살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묵시록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나리라”, 즉 불멸성을 소유하고 일어날 것이다(고전 15:52).

그리스도의 두 번째 생애 동안 일어날 신자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다

불사.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 기록된 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 한 말씀이 응하리라”(고전 15:52-54).

## 진실과 오류의 대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계 12:9)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지구상의 선과 악 사이의 갈등은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죄인의 몸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원수는 자신의 속임수를 정교하게 다듬어 이교 종교 제도에 도입했습니다. 몸은 죽어도 생명은 계속되지만, 다른 형태, 즉 '영혼' 상태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불멸이라는 생각이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교 국가들은 죽은 사람이 다른 주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와 의사 소통하는 척하는 기술인 마법 또는 강령술이 발전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죽은 자에게서 “지혜” 즉 조언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후손 중에 이 이교 행위에 가담한 남자나 여자가 없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교 나라와 더 긴밀하게 접촉하게 되면서 점차 그 나라의 많은 관습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라.”

“사람이 점쟁이와 마술사에게로 나아가서 음행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내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신의 영이 있거나 마법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로 자신을 돌로 칠 것이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탈출 21:18; 레위 20:6, 27) 그리고 모세는 죽기 전에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찌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점 보는 자나 점치는 자나 점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무당이나 요술객이나 신령에게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죽은 자를 모시는 자나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처럼 완전해질 것이다. 네가 차지할 이 민족들은 예언가와 점쟁이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네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신명기 18:9-14).

하느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거듭거듭 이 이교 관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마술을 좋아했습니다(왕상 9:22). 므낫세 왕은 정조가 되어 점술가와 마술사를 세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진노하게 하였느니라(왕하 21:6).

하나님께서서는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광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까? 율법과 증언으로! 만일 그들이 이 말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새벽을 보지 못하리라”(이사야 8:19, 20).

특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는 사울의 경우입니다. 신성한 역사는 누가 죽은 친척이나 친구인 척하고 “죽은 자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선지자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여 장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와서 수넴에 진을 쳤으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무당 들린 여자를 찾라 내가 그에게 가서 의논하겠나이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느니라 하매 사울은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인에게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청컨대 무당의 영으로 나를 점쳐 내가 네게 말할 사람에게로 나를 데려오라 하였더라”(삼상 28:3-8). 여기에서 그녀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편에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신이 아닌 다른 정보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이르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데리고 올라가랴? 그가 이르되 나를 사무엘에게로 데려오라... 그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삼상 28:11, 13). 참고: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다른 사람들, 즉 악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모습은 어떻느냐? 여자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를 싸매었나이다

표지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불안하게 하였나이까? (나 삼. 28:14, 15).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인 척 하는 마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은 자와 교통하는 행위가 사람들을 악귀들과 직접 접촉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이들은 남성보다 더 지능적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과 대면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방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성회에 참여하는 방문과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무당은 죽은 자와 소통하고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만남의 최종 결과는 사울의 이야기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고 네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내 입으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어

네 동료 다윗에게 주어졌느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아말렉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자손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삼상 28:15-20).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토 내에서 마술을 용납하지 말라고 매우 단호하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초래할 재앙적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울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 생명과 부드러운 삶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운명, 영원히 잃어버린 운명을 봉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믿었더라면 그는 오늘날 구원받은 자 가운데 포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여러 측면에서 변했지만 선과 악의 갈등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사탄은 동일한 속임수를 주장합니다. 그는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앙을 공언하는 그리스도교 교회의 신앙 내에서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 있다면 왜 그들과 소통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쉽게 변모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와 버릇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매우 사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공적으로 수천 명을 속이고 그들을 자신들의 대열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성한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니라”(고린도후서 2:14, 15). 그것은 하늘의 찬란한 세라핌의 영광으로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출현을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확실한 표시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율법과 증언!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새벽을 보지 못하리라”(사 8:20).

현대 영성주의의 본질은 죽은 자와의 소통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악의 싹을 제거하는 진리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전 9:5, 6). 그러므로 그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성경적 믿음은 강신술의 기초를 훼손하고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지지하는 영혼 불멸 교리는 현대 성의 겹으로 뒤덮인 고대 마술에 불과한 강신술의 오류에 대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출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크레딧이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한 발현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았더라도 남 자든 여자든 이 세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다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이 책에서 다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을 읽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돌아와 그의 친척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또 그

선지자;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그러나 죽은 자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오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6:27-3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룩한 편지”(딤후 3:15)입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제공된 상, 즉 영생의 가치에 비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주시고 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자신의 해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서 해석을 취하겠습니다”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신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또한 발견하게 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같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고전 14:33). 서로 다른 교회들은 그들의 신조가 너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옳지 않으며, 옳을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전파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할 때에만 옳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주제로 돌아가서 또 다른 대중적인 강신술 가르침과는 반대로, 성서는 그들이 무덤 후에 다른 몸으로 환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생에서입니다. 누구도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 관한 진리와 영혼불멸의 오류, 강신술과 주술 사이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묵시록의 나팔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기 전 마지막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불 불 준비를 한지라”(계 8:2, 6). 성경은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팔이 불고 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고전 1:1).

15:51, 52). 그러면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을 마지막 기회를 잃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것인지가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다른 이의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니 그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시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시니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해와 월과 시에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되었으니... 또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살인과 복술도 회개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 13-15, 20).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나는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8)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권세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들은 버림받을 것이요... 마술사들도 그러하리라”(계시록 22:14, 15).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파멸을 막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싶나요? 오늘, 살기 위해 삶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오류를 믿었다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것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결국 적의 길로 얼마나 멀리 갔을지라도. 그 사람과 계약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분의 피는 모든 인류를 사탄에게 묶은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 아니었지만 오늘 그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으는 것도 나에게 합당하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양 떼와 목자가 있으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한복음 10:16, 28, 29).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의 완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류를 버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 삶의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 부록 1

성소의 가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봉사를 시작하신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 즉 금 등대, 진설병 상, 향단이 있었습니다(히 9:2, 출 30:1-3). 이제 우리는 하늘 성소와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가구들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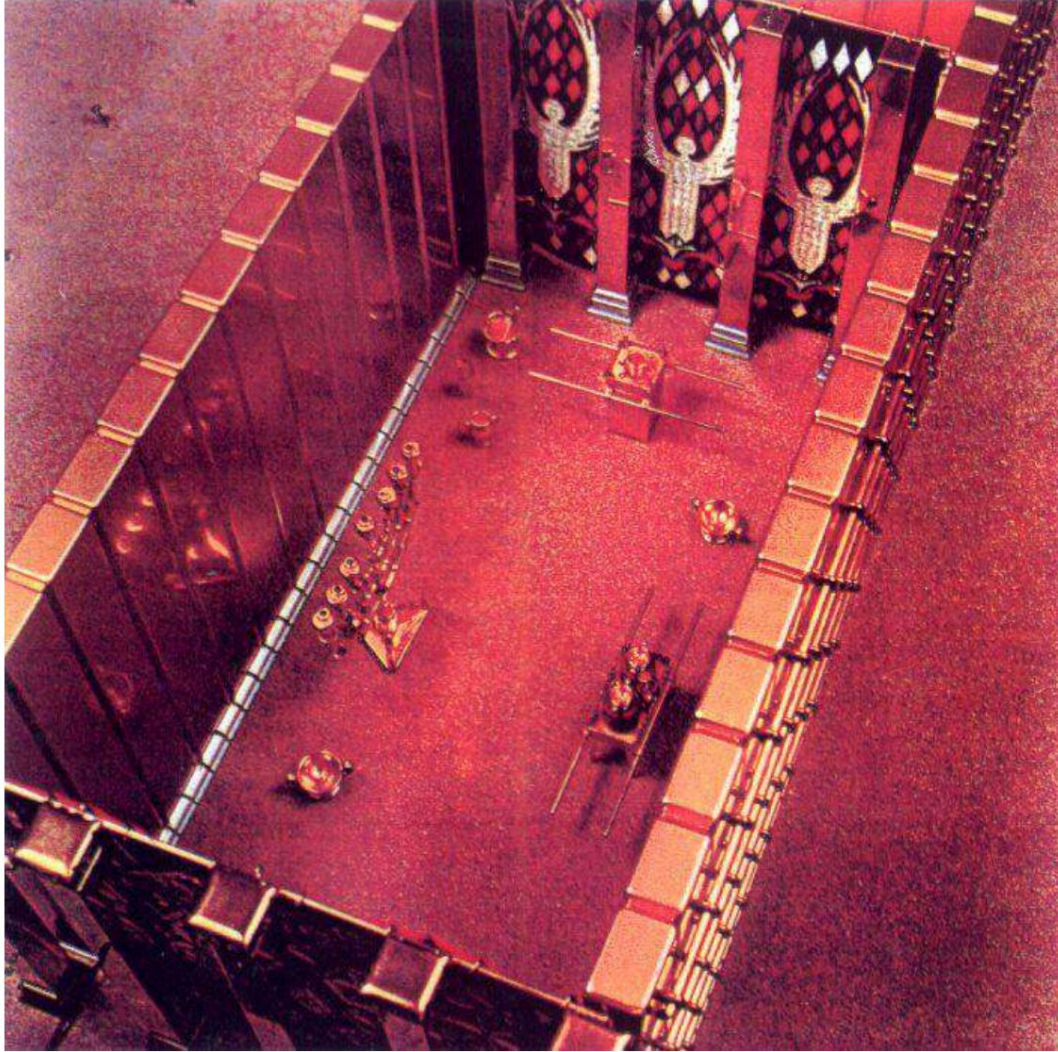


그림 1 - 일곱 개의 램프가 있는 상들리에(왼쪽)가 있는 성소의 평면도. 분향단(그림의 윗부분)과 채 두 개와 진설병 상(오른쪽)과 채 두 개가 있다.



그림 2 - 황금 램프

금 등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25:31-39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일곱 촛대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Apoc. 1시 20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전체 주는 7일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촛대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구성원 전체를 상징합니다.

등잔 일곱 등잔은 등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 순수하다, 두들겨 치다. , 등불을 위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기 24:1, 2) 등불에 항상 기름이 공급되어야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을 공급받아 선한 일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등대에 포함된 상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땅의 성소에서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등불이 항상 타도록 심지를 관리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증거의 휘장 밖에서 회막 안에 있고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레 24:3).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중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과 협력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일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18,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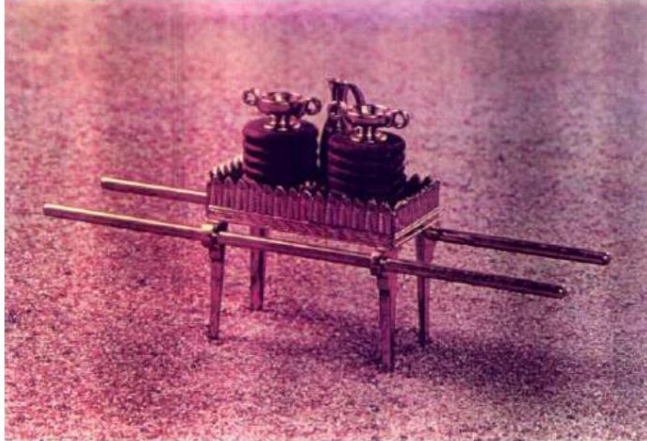


그림 3 - 진설빵 테이블

진설빵 테이블.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25:23-30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가장자리에는 면류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각 반열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가 높은 나무를 찍으며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는 줄을 알리라. , 마른 나무를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에스겔 17:24) 상을 구성하는 금으로 입힌 마른 새틴 나무는 금과 같은 귀중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베드로전서 1:7). 탁자 가장자리에 있는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시록 2:10).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이 또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약속대로 영생의 상속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테이블 상판이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너비가 1큐빗, 길이가 2큐빗이었습니다. 길이는 2큐빗, 너비는 1큐빗으로 하여라”(출 25:23). 이러한 차원을 지닌 남성을 상징하는 나무 상판 역시 의미를 지닙니다. 큐빗(cubit)은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팔꿈치부터 손 중지 끝까지의 팔뚝 길이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크기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큐빗을 사람의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일백사십사 척이니 사람의 척량으로 하였더라”(계시록 13:1). 21:17). 테이블 상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새틴 보드 세트이므로 특정 수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너비는 사람의 치수인 큐빗이므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상은 길이가 2큐빗으로 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함께 모인 두 그룹의 신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같은 판,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하나된 전체를 이룹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두 민족 가운데 하나를 만드사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4-16)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유일한 수단,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식탁 위에는 빵 열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설병, 즉 항상 떡이라고 불렸습니다. “진설상 위에는 청색 천을 깔고...항상 떡도 그 위에 놓일 것이요.” (하나에).

4:7). 성경에서 빵은 참된 교회의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많으나 빵이 하나요 몸도 하나요.” (고전 10:17). 열두 떡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며, 이것이 임재의 떡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열두 사도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열두 가지 기질을 대표합니다. 열두 지파의 근원이 된 야곱의 각 아들들의 기질과 또한 예수의 열두 제자들의 기질에 대한 연구는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오늘날 과학은 인류의 독특한 기질의 12가지 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소에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열두 개의 떡은 모든 기질의 사람들이 참된 교회에 속하고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증거입니다. 당신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당신도 그들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그림에서 12개의 떡이 6개의 떡으로 된 두 기둥에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너도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떡 열두 개를 구우라. 각 케이크는 십일조 두 개가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 깨끗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개씩 놓아라.” 레위기 24:5, 6. 빵을 둘로 나누는 것은 식탁의 크기를 연구함으로써 이미 본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즉, 두 계층,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 속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상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늘날 그분의 동등한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계시느냐?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방인에게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도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도 의롭다 하시는 이시니라.” “이 비밀은 계시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롬 3:22, 23,29, 30; 엡 3:3, 6).

---

하늘 성소의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은 바울의 글, 이 경우에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서 나온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전한 내용은 성소의 상징을 올바르게 이해한 데서 나오는 영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의 성소 곧 하늘의 모형을 알고 그것을 연구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성소의 상징으로 드러난 진리, 곧 믿는 이방인들의 지위와 특권에 관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빵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임이니라.”

(레위기 24:9).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시 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일상적인 일에서도 훨씬 더 신 중하게 행동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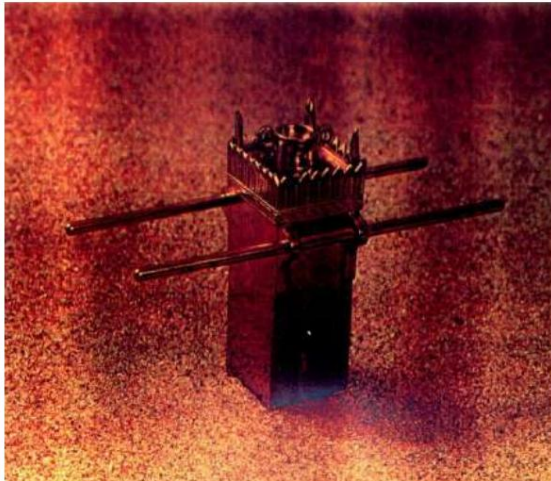


그림 3 - 분향단

향단. 분향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30:1-8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가장자리에는 면류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것을 덮고 있는 금은 믿음을 통해 그가 승리하고 가장자리에 새겨진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것은 너비가 1큐빗, 길이가 1큐빗인 정사각형이었습니다. 큐빗은 사람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기구였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향연을 피우니 향기로운 향이 나며, 이는 고백한 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휘장이나 휘장에 제사장이 뿌린 피의 불쾌한 냄새를 극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의와 우리 죄의 불쾌한 냄새를 섞어 향단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히 9:5-9). 이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33년에 해당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 죄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즐겁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승리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분의 순종의 삶에 대한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됩니다.

묵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향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두려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계시록 8:3) 제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또한 “그의 몸인 교회”(골 1:24)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가장 거룩한 곳

“둘째 휘장 밖에는 지성소라 일컫는 성막이 있으니 그 안에는 금 향로와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그릇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 싹이 돋은 것과 언약의 돌판들과 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히 9:3-5).